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보수)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5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b>가</b>	<b>다</b>	서 울 02.3705.6000	울 산 052.247.3520	천 안 041.575.0961
강 릉 033.651.1385	대 구 053.652.0070	서 천 041.951.6400	원 주 033.742.6090	청 주 043.265.3700
거 제 055.682.4950	대 전 042.254.3035	성 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 천 033.254.4878
경 주 054.772.8141	동 해 033.531.3007	세 종 044.865.0872	익 산 063.857.8910	충 주 043.848.3240
고 양 031.919.4040	<b>마</b>	속 초 033.635.3523	인 천 032.424.0524	<b>타</b>
광 명 02.895.1966	마 산 055.246.8746	수 원 031.252.5111	<b>자</b>	통 영 055.646.2547
광 양 061.762.0012	목 포 061.242.1611	순 천 061.744.7990	전 주 063.224.5501	<b>파</b>
광 주 062.524.3511	<b>바</b>	<b>아</b>	제 주 064.711.8322	파 주 031.945.5998
김 해 055.332.6000	부 산 051.441.2221	안 동 054.854.5482	제 천 043.646.6009	평 택 031.651.7701
<b>나</b>	부 천 032.668.9700	안 산 031.483.6536	진 주 055.755.3463	포 향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b>사</b>	안 양 031.455.2700	진 해 055.542.0020	<b>하</b>
남 원 063.632.7002	사 천 055.833.2344	양 산 055.367.1144	<b>차</b>	하 남 031.793.7771
논 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 수 061.654.2161	창 원 055.283.9488	

2014. 4

**한국YWCA**

한국YWCA 창립 92주년 기념사

**특집**

일본군 성노예문제 남북해외여성토론회를 다녀와서

**이달의 현장**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관련 우수급식산업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지역운동이야기**

YWCA는 사람입니다



창밖의 모과나무가 연분홍 빛깔의 고운 꽃을 피웠습니다.

마치 “예쁜 나를 봐주세요!”라고 자랑하며 서 있는 듯합니다.

마당엔 모과뿐만 아니라 후박나무, 팬지, 철쭉 등 이런저런 꽃들이

저마다의 빛깔과 향으로 자신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꽃과 같이 우리의 하루하루도 무언가 자랑거리를 찾고 만들어가는 고된 과정이라 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와 지위와 인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갈라디아서 6:14)라고 오직 십자가만 그의 자랑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유일한 길ियो,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하늘의 선포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사진·글 / 최병성 (목사, 환경생태운동가)

### 목 차

- 04 월레아침기도회 시대의 징조 | 최대광
- 05 한국YWCA 창립 92주년 기념사 | 차경애
- 06 한국YWCA전국연맹 창립 100주년 기념 인터뷰 | 편집실
- 08 연합회 사무총장 보고 4월의 한국YWCA | 유성희
- 특집** 동북아 평화 거쳐 통일한국까지
  - 10 기획 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평화 | 윤미향
  - 12 기획 ② 일본군 성노예문제 남북해외여성토론회를 다녀와서 | 한영수
  - 14 기획 ③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연변 | 배정미
  - 16 기획 ④ 이산가족 상봉 현장 | 김영순
- 칼럼**
  - 18 탈핵 제3편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 김익중
  - 20 여성 돌봄의 능력, 우리 모두의 것! | 백소영
  - 22 인권 국제인권조약 I | 김정린
  - 24 청년 YWCA와 함께 자라온 5남매 Story
- 26 이달의 현장 ① 사무총장협의회
- 27 이달의 현장 ② 키다리학교 입학식
- 28 이달의 현장 ③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관련 우수급식산업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 30 이달의 현장 ④ YWCA 어린이집 조리사 역량강화 워크숍
- 31 이달의 묵상 생명의 바람 | 이천진
- 34 지역운동이야기 YWCA는 사람입니다 | 명진숙
- 36 연합회 소식
- 38 회원YWCA 소식



#### 표지이야기

초심! 누구나 새로 시작하는 걸음은 새로운 다짐과 포부로 가득하다. YWCA에서 생명과 평화를 이루려는 신임 Y 활동가들의 밝은 웃음이 4월의 상그라운드 위로 피어난다.

제50권 제3호 통권 509호 2014년 4월 18일 발행(등록번호 라-746호) 발행 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차경애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문권희·백수경·신선·원영희·윤혜원·이경순 편집 박은실·이주영·전하예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1가 1-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9703 팩스 02-774-9724 http://www.ywca.or.kr 편집디자인 (주)세이미디어(02-730-0746) 인쇄 총무기획인쇄(02-2263-3223)

한국YWCA연합회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 시대의 징조

글 | 최대광 (정동제일교회 부목사)

##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께서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앗이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비유에 숨어있는 비밀은 '고난'입니다. 씨앗이 대지를 뚫고 나와 새 생명이 되는 것은 고난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씨앗의 표층과 흙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나누어 지는 부담 없이 부활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회퍼 목사는 값싼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행동을 전제하지 않는 믿음만, 고난을 관통하여 생명으로 향하려는 은총을 바라지 않고 오직 행동이 없는 믿음만, 고난이 없는 생명만을 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수많은 십자가를 지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과 주님이 주신 세계를 위해 그 십자가를 나누어 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씨앗은 고난을 뚫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후변화, 곧 환경의 문제가 이 시대 모두가 져야 하는 십자가,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 변화에 의해서, 방사능에 의해서, 망가진 지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수백만 년의 세월이 흘러야 한다는 것입

니다. 종말은 성경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니라, 코 앞에 다가온 우리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며 지질학자인 토마스 베리는 '현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으로 과연 지구의 미래, 아니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적 죄와, 초월적 천국만을 지향하는 이 신앙으로는 오늘날의 환경문제에 응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복적 신앙으로, 이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본문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늘에서 오는 표적 보이를 청했다고 했습니다. 표적은 곧 기적입니다. 기적을 보이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더 정확하게 날씨와 기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민한 현대인들은, 이렇게 날씨와 기후를 알고 있고, 이대로 살다간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대의 표적, 시대의 징조를 억지로 모른 채 합니다. 모른 채 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시대의 징조를 무시하는 표적만 구하다가, 우리도 심판에 이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나누어 질 십자가를 지우십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삶의 모습과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소박한 삶을 살며,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 속에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한 명이 꿈꾸고 실천하면 몽상이 되지만, 모두가 꿈꾸고 실천하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 선 자리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이 변화를 위해 십자가를 나누어 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글 |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한국YWCA 창립 92주년을 맞아 YWCA의 회원, 자원지도자, 실무자들에게 평화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창립기념일은 우연하게도 부활주일과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창립기념일과 부활주일이 중복된 때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금년 창립기념일의 의미가 더 남다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생명을 버리시기 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Y의 활동은 아주 작지만, Y활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한국Y가 창설된 1922년 4월 20일도 부활주일이 지난 지 며칠 되지 않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김필레, 김활란, 유각경 세 분의 앞서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출발한 한국Y는 계몽운동과 교육운동을 시작으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과 소비운동, 환경운동을 선구적으로 펼쳐왔습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운동과 탈북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활동, 북한어린이에게 분유보내기 운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여성에게 여성지도자상을 수여해 여성지도력을 격려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청소년들이 바른 경제관을 갖고 살아가도록 씽크머니(Think Money) 교육을 실시해 씽크머니 교재가 학교교재로 채택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2012년 창립 90주년을 맞이한 한국YWCA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 라는 주제로 Y가 추구하는 섬김, 나눔, 살림의 가치를 '청춘여찬(靑春女讚)' 이라는 표현에 담아 창립 100주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고 생명나무, 숲 프로젝트(The SUP/Self Upgrade Project), 통일리더십아카데미 등을 계획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세계YWCA 리더십 프로그램인 ITI를 한국에 유치해 세계에 한국Y를 알리고 '여성폭력' 에 함께 대항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생명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생명살림의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꽃다운 생명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남겨진 상처들이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습니다.

연합회와 52개 회원Y는 금년에 탈핵운동, 대안교육과 청소년운동 활성화, 평화통일, 돌봄노동권 확보, 여성폭력 예방, 성인지사업 등 6대과제를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기에는 우리의 힘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나 Y활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어져오고 있음을 확신하며 Y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이사야 52:7) 만물이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계절에 Y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또 다른 100년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며



한국YMCA전국연맹이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다. 한국YMCA는 지난 4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갖고 비전선언문을 발표하며 새로운 100년을 다짐했다.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생명과 평화의 여정을 걷고 있는 한국YMCA전국연맹 안재웅 이사장을 만났다.

**올해 한국YMCA의 창립 10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YMCA의 지난 100년을 돌아보는 이사장님의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한국YMCA전국연맹(이하 '한국YMCA')의 100주년 기념식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성찰하고, 현재를 분석해 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YMCA는 구한말, 개항기 지식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에서 시작됐다. 1899년 150여 명의 청년들이 한국YMCA의 설립을 청원했고, 이것이 1901년 배재학당 학생기독교청년회 조직과 1903년 황성기독교청년회 창립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1914년 4월 2일 조선중앙Y와 9개 학생Y 대표 등 45명이 모여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를 결성함으로써 시작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일제의 무단정치 속에서도 우리의 선배들은 자랑스러운 기개로 한국YMCA를 통해 문화운동뿐만 아니라 민족독립운동을 해보자는 진취성이 있었다. 특히 1924년 한국YMCA가 세계연맹에 독자적으로 가입한 것은 대단한 일이었으며 그래서 올해가 창립 100주년인 동시에 한국YMCA의 세계연맹 가맹 9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YMCA의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2013년 5월 출범했다. 공동 대표로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이 도와주신 덕분에 여럿이 함께 협의하며 로드맵을 만들어 준비했다. 또한 올 연말 한국YMCA 100년사 발간을 위해 준비중에 있다.

**기념식에서 선포하신 비전선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다른 100년을 향해 가는 한국YMCA의 운동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국YMCA가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영성'을 부각시키고 이 사회를 보다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이다. 사회적 영성의 기본은 성서 연구이다. 성서 연구의 전통은 일제 치하에서 성서를 연구했던 우리의 선배들이다.

한동안 소홀히 했던 성서 연구로 다시 돌아와 성서를 재해석하고, 이 해석에서 나오는 사회적 영성으로 또 다른 100년, 한국YMCA의 다음 100년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다짐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개인의 영성 훈련을 강화할 뿐 아니라 기독교적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또 다른 100년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특히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이라는 100주년 사업 비전 슬로건이 인상적입니다. 한국YMCA에게 있어 '생명'과 '평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생명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태복음 16:26)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와 반대로 지금 우리는 생명 이 너무나도 경시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혹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갈등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값없이 죽어간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생명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한국YMCA의 사명이자 우선순위이다. 결국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평화통일로 이어진다. 평화통일은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의 모든 지구시민이 함께 매달려야 할 일이다.

또한 평화는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 '팍스 크리스티아나'(Pax Christiana)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준다. 내 마음의 평화로부터 가정의 평화, 직장의 평화, 사회의 평화, 세계의 평화로 번져나가게 하는 것이 이 평화운동의 핵심이다.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평화를 이뤄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이 사회를 '반(反)평화'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YMCA와 같은 기독교민단체가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쏟고, 지구시민평화운동 캠페인을 하는 이유이다.

**한국YMCA의 이사장 임기가 2년인데 재임 기간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또 재임 중에 이루고 싶으신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이사장을 맡은 동안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종YMCA가 임기 중에 창립된 것이다. 지역YMCA가 창립되려면 꼬박 2년이 걸리는데, 모든 요건이 준비가 잘 되어 2014년 3월 18일 세종YMCA가 전국 66번째 YMCA가 되었다. 재임 기간 중 잊지 못할 일이 될 것 같다.

최근 세계YMCA가 강조하는 것이 청소년 역량강화(youth empowerment)이다. 전 세계적으로 300여 명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변화추진자(change agent)로 양성하며 청소년 이슈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YMCA도 세계YMCA의 흐름에 맞추어 올해 안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 조사를 발표하여 한국 사회와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이슈를 다루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한국YWCA연합회는 올해 92주년이 되어 앞으로 10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100주년을 맞은 한국YMCA가 조인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YMCA와 YWCA가 가진 좋은 점 중 하나가 한국Y가 세계Y의 회원이기 때문에 국제성을 가진 단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YMCA·YWCA는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름만 국제단체가 아니라 한국YWCA가 고민하는 것들을 세계YWCA에 가서 이야기하고 협력을 구하고, 또 실무자들을 국제적으로 훈련시키며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한국YMCA의 경우, 세계YMCA연맹 회장을 지낸 서광선 박사와 아시아태평양YMCA 연맹 회장을 지낸 박재창 교수 등 세계연맹과 아

시아태평양연맹의 임원직들을 한국YMCA에서 배출해냈으며 지도력 면에서는 상당한 국제적 가능성을 가진 후배들이 자라나고 있다. 한국YWCA도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여성 지도력이 더 많이 발휘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YMCA·YWCA가 매년 11월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교류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간사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앞으로 한국YMCA·YWCA가 함께 한국 시민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기 기대한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으로 ▲ 한국 시민사회 100년 박람회 및 문화행사(4월 5일) ▲ 한반도 평화를 위한 1천명 자전거 국토 순례(7월)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청소년 DMZ 평화순례(8월) ▲ 평화와 사랑을 나누는 YMCA 회원의 날(11월) ▲ 아시아 청소년 스포츠 평화 페스티벌 ▲ 한국YMCA 100주년 시민참여 이벤트 등을 실시한다. 또한 10대 비전사업으로 ① 100주년 기념 아시아 생명평화센터 건립 ② 대북민간지원 국제협력기구 설립 YMCA 한반도 평화주간 국제캠페인 ③ 아시아 평화지도자 1천 명 육성 평화교육 ④ 협동경제와 순환경 지역사회 및 도시농촌간 생명고리 만들기 운동 ⑤ '학교폭력 예방, 평화로운 학교' 위한 생명평화 바람꽃 청소년 육성 ⑥ 대학Y 육성 발전계획 수립 및 청년 불려터어센터 설립 ⑦ 공정무역 운동(Fair Trade) 확산 및 사회적 기업 육성 ⑧ 팔레스타인 평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⑨ 참여형 시민아카이브 구축 ⑩ YMCA 새로운 100년 비전선포 및 한국YMCA 100년사 발간 등을 추진한다.

# 4월의 한국YWCA

글 |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

4월입니다. 부활을 앞두고 고난을 받으신 고난주간을 4월에 보냈습니다. 주간에 일어난 진도해상의 참사사고는 온 국민들에게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전했습니다. 한국YWCA의 모든 회원들도 기적을 바라며, 아이들의 생존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주의에 물든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아이들의 비극적인 희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선박을 운행하면서 안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4월에는 거제Y, 수원Y, 서울Y가 명동 한국YWCA연합회 앞에서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주관하여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불을 꺼야 한다는 안타까운 외침을 전했습니다. 이 외침은 지역에까지 이어져 4월에만도 부산Y, 창원Y, 광주Y, 여수Y는 회원Y가 속한 지역에서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도,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명이 가장 절박한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부천에서 전국 최초로 방사능안전급식 진흥형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절망의 상황에서 작은 희망을 갖게 합니다. 부천YWCA가 지역의 어머니들의 염원을 모아 네트워크를 만들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성과입니다. 조례 제정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모두의 관심과 기도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교육이 4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경기지역의 12개 회원Y가 작년에 활발하게 모니터링 활동을 해 주신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이 한국YWCA 전국사업이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는 성 인지적인 관점으로 모든 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 민간영역의 철저한 감시와 정책 제안이 필요합니다. 전국 규모의 여성운동체인 한국YWCA가 꼭 해야 하는 과제이므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 회장단이 모이는 회장단 연수가 4월 2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열립니다. 회원Y 회장, 부회장 총 150여 명의 대표들이 Y의 정책 과제를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와 함께 4월에는 다래교실(다문화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학습지원교실)과 청소년금융교육(씽크머니) 협약식과 전문강사교육도 있습니다. Y만큼 '교육'이 많은 시민운동조직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교육이 있는 한국YWCA는 시민과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학교'이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는 소망의 새로운 길을 열어왔습니다. 특히 모든 책임을 맡은 Y리더십의 연수인 회장단 연수를 통해 하나된 마음과 영성으로 운동을 펼쳐갈 수 있을 것입니다.

4월은 한국YWCA와 100주년을 맞은 한국YMCA의 창립기념일이 있는 달입니다. 올해는 4월 20일, 부활절과 한국YWCA 92주년 창립기념일이 같은 날입니다. 100년을 앞두고 있는 한국YWCA의 역사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신명기 30:19)는 말씀을 지켜온 생명운동의 역사였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지키는 옳은 길을 걸어가는 한국YWCA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뤄지기를 기도합니다. 🙏



## 동북아 평화 거쳐 통일한국까지

- 기획 ① \_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평화 | 윤미향
- 기획 ② \_ 일본군 성노예문제 남북해외여성토론회를 다녀와서 | 한영수
- 기획 ③ \_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연변 | 배정미
- 기획 ④ \_ 이산가족 상봉 현장 | 김영순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평화

글 |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세상 어디에서도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사를 보고 배워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처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봤기에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에서 그 여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얼마나 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문제도 해결이 안 되었지만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외국나라에 기대지 말고 우리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야 일본군대가 다시 넘보지 않습니다.”

- 위안부 할머니들의 발표 중에서

## 평화가 무엇일까?

평화가 무엇이냐고 나 자신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 그럴 때 늘 나는 바로 이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이 '평화' 라고 자신있게 답을 한다. 할머니들의 이 평화를 생각 하면 가슴이 쿵닥거리며 금방이라도 뭉개져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 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겪어왔기에 그 쪽도 얼마나 아플지 알고 있다면서 나도 아프지만 아픈 그 쪽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나라가 다시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는 할머니들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할머니들의 평화이고, 할머니들과 지난 23년간을 함께 해 온 우리의 평화다.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지난 우리는 아시아 여성들의 연대로, 세계여성들의 연대로, 남북여성들의 연대로, 그렇게 함께 손잡고 달리고 있다.

##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아팠기에, 그 전쟁터에서 일본군이 여성들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전쟁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은 입을 모아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 1990년 대 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시작되고 난 후 일본정부는 총리로부터 정치가, 언론

등 전 분야에서 일본군 '위안부' 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부정하며, 위안부는 스스로 돈 벌기 위해 매춘부가 되었다는 등 망언을 계속해 왔다. 특히 아베 정권은 여성들을 연행과정에서 납치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제 연행한 자료가 없 다면서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는 명백히 국가의 제도, 정책으로 기획되어 국가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성노예제도였다. 군의 '관여' 정도의 참여가 아니라, 전적으로 일본정부가 군의 정책으로 수립하여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시행한 범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제연행 부인' 발언을 하며,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본질을 단순히 연행과정에서의 '협리적 강제성 유무' 로 몰면서 국가차원의 범죄인정과 책임인정을 회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향해 피해자들은 외친다. “다시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었던 그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역시 피해자들의 발언에서 찾아진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밥 달라고 이렇게 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달라는 것이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사죄하라는 것이고, 법적인 책임으로 지급하는 배상과 역사교육 등 후속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2007년 12월, EU의회 결의채택을 위해 유럽을 순회하며 캠페인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일본 언론이 길원옥 할머니와 인터뷰 끝에 “일본정부에게 얼마나 돈을 원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그에 대한 할머니의 답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배상운동에 있어서 '무조건 돈' 이면 해결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 무조건 돈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대로 국가가 이 모든 범죄의 주체이고 원 인이라고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며 국가의 배상금, 또한 재발방지 조치를 위한 역사교육과 추모사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할머니들이 바라는 이 해결을 이루기 위해 1990년 11월 16일에 한국의 37개 여성단체가 모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약칭 정대협)를 창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23돌이 지났다. 그동안 정대협은 UN, IL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미국과 캐나다, 네덜란드, EU 등 세계 여러나라 의회에서 결의채택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 남북연대로, 아시아피해국의 연대로 한목소리로 외쳤고, 2000년에는 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을 개최하여 히로히토 등 책임자들에게 유죄를 판결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3년 동안 거의 매년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정부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거나 권고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그런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꼭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며 묵살하거나 거부하면서 역사왜곡과 망언의 극치를 향해 치닫고 있다.

## “우리는 아파봤기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일본정부는 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을 때 피해자들은 한 단계 더 평화를 향한 발돋움 을 시작하였다. 바로 '나를 위한 평화' 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평화' 를 직접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들이 자기들 문제도 해결 못했으면서 다른 피해자들을 돕겠다고 한다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파봤기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 돕고 싶습니다.” 2014년 3월 8일, 전시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나비기금 2주년을 맞이하면서 김복동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다. 베트남의 미국전쟁에서 한국 군인들에 의해 성폭행당한 베트남 피해여성들을 향해서는 “한국국민으로서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하면서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한국정부를 향해서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할머니들, 이 할머니들의 마음을 '평화' 라는 말 말고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 때는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해 준다

국제여론은 이미 우리의 편이다. 아니 정의의 편에서 있다. 이제, 더더욱 우리의 하나된 목소리를 모으고, 국제사회와의 연대 속에서 남북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아시아 피해국 여성들의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할 때이다. 여성폭력을 추방시키고, 평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활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세계 1억인 서명운동을 세계 각지로 펼쳐며!
2.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본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공개하며 일본정부와 국제사회의 침묵을 깨뜨리게 했던 8월 14일을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메모리얼데이)"로 함께 지키며!
3. 세계 각지에 평화비 건립으로 일본제국주의가 아시아의 여성들에게 저질렀던 성노예 만행을 세계가 기억하게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평화기념활동에 연대하며!

#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공식 사과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 막는 첫 걸음

글 | 한영수 (연합회 부회장)

2014년 3월 29일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해외 여성토론회가 중국 선양에서 열렸다.

이 날 모인 남북해외 참가자들은 '일본군의 성노예 범죄를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과 연대활동을 더욱 강력히 벌여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해외 여성 토론회가 중국 선양에서 2014년 3월 28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있었다. 북측 대표단 10명, 해외 대표단으로 일본측 8명, 중국측 2명과 남측은 대표단 11명, 실무팀 3명과 길원옥 할머니를 포함한 참가단 11명으로 모두 45명이 한자리에 둘러앉았다. 북측, 남측, 일본측과 중국측이 비록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만났다 할지라도 한글이라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연대 앞에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라는 것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온몸을 덮는 피부에까지 느껴졌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5일에 남북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다.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6.15 공동선언을 하였다. 그 일환으로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해외 여성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다.

토론회는 3월 29일 하루 종일 진행됐다. 남측, 북측, 해외측 대표들의 인사말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주제토론은 3

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주제토론1은 '일제과거사 범죄', 주제토론2는 '일본군 성노예문제', 주제토론3은 '군국주의 부활'로 각각의 주제별로 북측, 해외측, 남측 대표들이 기조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조발표 토론회 형식들이 끝난 후 마지막에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역시 북측, 해외측, 남측 대표들의 낭독으로 토론회를 끝마쳤다.

### 아직도 생생한 그 날의 기억

길원옥 할머니께서 일본군 성노예문제에 관한 증언을 주제토론1과 주제토론2 사이에 해주셨다. 할머니께서는 북녘 땅 자강도 희천에서 태어나셨다. 1940년 겨울, 13살 어린나이에 만주 하얼빈으로 위안부로 동원되어 가셨다. 그곳에서 성병이 너무 심하게 걸려 일본 군인들을 상대할 수 없게 되자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그 후 1942년에 다시 중국 석가장 지역으로 끌려가 위안부로 사셨는데 그때 일본군이 군도를 빼지 않은 채 머리 정수리를 내리쳐 흘린 피가 옷을 찢어내야 할 정도였고 지금도 그 흉터가 크게 남아있다. 해방을 맞아 인천으로 귀국하셨으나 북쪽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살고 계신다. 그동안 음지에 숨어서 혹시나 그 무서운 과거를 누가 알까봐 조마조마하며 살아 오셨다고 하셨다. 대인기피증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안고



일본의 사죄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남북해외여성들 (2014. 03. 29) • 사진제공 정대협

그것을 숨기고 사신 것이다. 그래도 묵묵히 살아내신 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참석한 모두는 죄송한 마음으로 할머니께 존경의 마음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께서는 노래를 아주 잘 하셨다. 웬만한 가수보다 훨씬 더 잘 하시어서 우리들의 만찬을 더 빛나게 해주셨다.

### 23년이 지나도록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

수요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로 1992년 1월 8일 낮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수요시위는 매주 수요일 낮 12시 정각에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리는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요구해 왔다. 수요시위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공간, 여성인권과 평화를 외치는 장, 국경과 이념 그리고 세대와 성별을 초월한 연대의 장으로 지금까지 23년째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십대 소녀로부터 유부녀에 이르기까지 20만 명의 조선 여성들을 강제 연행하여 낯선 타향에서 청춘과 희망, 생명까지도 짓밟았다. 조선 국내와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와 멀리 남태평양군도까지 끌고 다니며 성노예생활을 강요하였고 패전 소식에 현지에 버리거나 집단학살까지 시켰다.

또한 일본이 망각하고 은폐하려는 식민지 전쟁범죄문제는 강제불법병합, 창씨개명강요, 강제 징병과 징용자 840만

여 명에 대한 갖은 학대와 인체실험, 일본군 강제 성노예, 간도대지진 당시 7,000여명의 조선인학살, 재일 조선인 35,000여명의 원폭피해자의 치료와 보상차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 등 역사왜곡의 현장은 끝이 없다.

### 이제는 평화의 길을 걸어야 할 때

일본은 동아시아 각 나라에 대한 전쟁범죄의 인정과, 사과와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바른 역사 기록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일본 정치권과 사회가 점점 보수 우익화되고 군국주의화의 길로 가면서 식민지 지배와 전쟁 책임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와 발언들을 되풀이하는 것은 일본 재무장화에 대한 강한 열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일본정부에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동아시아의 각국을 대결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군비경쟁과 군사동맹의 강화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공동의 평화를 위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국YWCA는 여성시민단체로서 일본군 성노예문제를 미래세대에 전하고, 세계에 알려야 한다. 여성폭력을 추방시키고 평화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국제사회의 여론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대로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단체들과 연대하여 한 목소리로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일본YWCA와 함께 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법적 보상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연변

글 | 배정미 (연합회 부장)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민들레가 비를 맞으면 더욱 쑥쑥 자라날 수 있죠. 우리 민들레문화교류협회 설립 11주년 기념 회원의 날에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축하할 일만 남았죠. 축하공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 민들레문화교류협회가 새로이 탄생하는 날을 시작하며

지난 3월 29일 오전 9시30분 민들레문화교류협회 창립 11주년 기념 회원의 날 행사가 진달래광장 문화관 2층 한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약 50여 명의 이사,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1부 민들레문화교류협회 활동보고, 2부 축하공연, 3부 오찬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은 11주년을 민들레문화교류협회의 새로운 원년으로 삼고, 민들레 흙씨가 퍼져 근락을 이루듯 민들레문화교류협회를 키울 거라는 다짐과 그러한 다짐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한 자리가 되었다. 민들레문화교류협회는 연변백산여성문화여성구락부로 시작해, 영어, 컴퓨터, 리더십훈련, 제빵기술 등의 13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이 13,428명에 이를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2007년 9월 제1대 김장옥 회장이 중국의 종교정책에 의해 활동을 정지당함에 따라, 제2대 김명금 회장이 추대되면서 2008년까지 연합회 아시아여성지도력개발사업위원회가 연변 민들레문화교류협회 이사와 회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정책형 명예연합위원이 쾌척한 아시아여성지도력개발사업 기금으로 철남동 아파트 2동을 구입하였으며 새 사무실 구입을 준비 중인 현재까지 저소득층 조선족 어린이집(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민들레문화교류협회는 2014년 현재 제4대 리해숙 회장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였다. 방과후 교실 위주의 사업으로, 한국과 연변을 오가느라 협회 활동에 소홀했던 약 13명의 이사진이 새롭게 구성되었으며, 일심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2013년 8월 '길위의 평화화

교' 참가자로 연변을 방문했던 퀸즈Y 홍인숙 고문총무와 서희전 명예이사가 연변에 체류하며 민들레문화교류협회 이사진의 훈련을 도와주기로 결단함에 따라 가능했다. 연합회는 2010년 당시 민들레 방과후 학교만 운영 중인 민들레문화교류협회의 운영지원을 잠정 중단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2014년 3월초부터 두 분의 퀸즈Y 지도력이 연변에서 한 달간 여성지도력 교육 등을 지원하면서 연합회가 실무진을 파견하고, 운영 전반을 지도하면서 약 7~8년간 부진했던 운동단체로서의 역할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 섬김·나눔·살림의 생명사랑공동체운동 전개 표명

3월 21일 첫번째 이사회에서 가장 먼저 논의한 내용은 민들레문화교류협회의 목적과 운영규정이다. “우리 여성들은 인류 모두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아시아의 여성지도력 개발을 목표로 연변 조선족 여성들의 마음(靈)과 정신(智)과 몸(體)의 건강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공부하고 실천(봉사정신)함으로써 생명과 환경, 평화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목적을 정하고 여성들이 섬김·나눔·살림의 생명사랑공동체운동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운동을 펼쳐나가기로 정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 실현을 위해 총 9장 제22조로 이루어진 운영규정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매주 이사교육 및 회원교육을 통해 반복학습 중이다. 또한 민들레문화교류협회는 청소년운동, 여성운동, 문화



민들레문화교류협회의 목적과 운영규정을 논의하는 이사회 (2014. 03. 21)


운동, 회원증모 및 국제운동체로서 여성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회원 참여가 가능한 사업부터 준비 중이다. 먼저 생명사랑공동체운동을 통해 연변 조선족의 공동체 의식 강화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 문화시민으로서의 의식 고양을 위한 실천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해체가정 회복 지원을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 건강상담 등의 상담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세대 간 민족교육 단절 현상의 해결을 위해 자존감 및 자부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노래교실, 무용교실, 어학교실 운영 등을 준비 중이다. 물론 모든 회원활동의 기본은 생명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함께 해나가는 생명사랑공동체 운동이며, 이는 의식강화를 위한 민들레의식으로부터 시작한다.

### 지정학적 요충지에서의 생명사랑공동체 이루기의 역할 필요

2013년 말 현재 연변 조선족은 79만 9천 504명으로 연변인구의 약 35.1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한중수교와 중국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계기로 자치주로서의 명맥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연변을 비롯한 중국 조선족 사회가 변하고 있다. 중국 내 조선족 집거지역인 중국 동북 3성(길림성, 흑룡강성, 산둥성)이 농업중심 사회인 탓에 많은 조선족 젊은이들이 중국 대도시로, 한국, 일본 등으로 흩어져 고령화는 물



민들레문화교류협회 회원의 날 (2014. 04. 05)

론 저출산, 가족해체 등의 문제가 중첩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YWCA와 민들레문화교류협회가 주시하는 것은 '연변의 문제'를 '연변의 기회'로 활용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먼저 동북공정을 비롯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에 대해 우리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중추적 역할로서의 연변공동체를 조직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중국에서는 변방에 불과한 길림성 연변자치주가 어느 민족보다 강한 민족단결성을 자랑하는 우리 민족 입장에서 보면, 지정학적으로 남북한을 아우르는 중심지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전히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는 중국 소수민족으로서의 위상만큼이나 이는 조심스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따라 북한과의 자유로운 친인척방문 등 왕래와는 달리 정치적으로는 민감한 시기에 정부 허가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들의 활동이 자유롭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민들레문화교류협회가 설립 11주년을 맞아 흩어졌던 이사들을 불러 모아 13명으로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의인 열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믿는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돌봄을 필요로 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한 곳,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기다리고 계신다. 

# 63년만에 여동생을 만난 아버지

글 | 김영순 (부천YWCA 부회장)

지난 2월 7일부터 28일까지 2014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63년만의 만남을 마치고 평화통일의 소망을 담아 상봉 후기를 씁니다.



(오른쪽부터) 고모, 나, 아버지, 사촌오빠 (2014. 02. 21)


지난 2월 21일 아침, 태극기를 단 버스 8대가 속초에서 고성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지나 북한 금강산으로 향했다. 63년 만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86세의 고령이신 친정 아버지께서는 81세의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여정에 오르셨고, 나는 아버지 보호자로 함께 가게 되었다. 눈 덮힌 휴전선 주위에는 봄을 알리듯, 또 남한에서 온 가족들을 환영하듯 오리떼들이 얼음 녹은 강가에서 놀고 있었다. 황해도 황주가 고향이신 아버지께서는 4남매 중 장남이셨는데, 전쟁 때 홀로 이남하게 되셨다. 아버지께서 평양대학교 사범대학교를 졸업하신 후 황해도에서 중학교 국어교사로 계실 때 6.25전쟁이 났다. 학교의 동료 교사들은 이념과 관계없이 인민군으로 끌려갔고, 아버지께서는 남한군 대위셨던 아버지 친구분의 권유로 대한청년단이 되어 국군 참전 용사가 되셨다고 한다. 시급한 전시 상황인지라 가족과는 이별의 시간도 갖지 못하고 홀로 남으로 오시게 된 아버지께서는 부모님과 물론 중학생이었던 동생들과 63년 동안 떨어져 살게 되셨다. 북한의 가족들은 장남이신 아버지께서 폭격에 맞아 전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번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연락을 받아 아버지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아버지와 고모, 그리고 사촌오빠와 나 이렇게 4명이 한 조가 되었다. 만남의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옛 고향의 이야기들을 풀어가며 남한과 북한의 가족들 이야기로 기

쁜 시간을 보냈다. 정치적 · 종교적 이념의 이야기는 나눌 수 없었지만, 가족이라 그런지 금세 서먹함은 사라지고 따뜻함이 느껴졌다. 숙소에서의 상봉시간에 연세가 81세인 고모의 무릎에 파스를 붙여드리며 안마를 해드리니 금세 잠이 드셨다. 80 평생을 황해도에서 보내시며 변화하는 세상 소식을 모른채 묵묵히 고단한 삶을 사신 고모의 주무시는 얼굴을 잊지 못할 것 같다.

이산가족 상봉을 무사히 마치고 속초로 돌아오는 길은 불과 1~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거리를 가는 데에 63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팠다. 분명 남북통일은 모두의 염원인데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민해보았다. 남한의 성도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로써 거룩함을 회복하고 통일한국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나 자신도 통일한국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오늘도 순간순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다짐해 본다. 아직도 7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 대가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다. 전쟁 1세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남북을 이어주는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가 쇠퇴할 것으로 본다.

고령에 접어드신 어르신들의 가슴 속 깊은 한이 풀어지도록 더 많은 상봉자들이 화상이나 서신 등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탈핵 \_ 제3편 :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 김익중
- 여성 \_ 돌봄의 능력, 우리 모두의 것! | 백소영
- 인권 \_ 국제인권조약 I | 김정린
- 청년 \_ YWCA와 함께 자라온 5남매 Story

#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글 | 김익중 (동국대 교수,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정책적 변화를 겪었다.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탈핵을 결정하였고, 러시아, 중국, 영국 등이 나름대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나라들이 원전정책은 변함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에서 프랑스는 정권교체 후 원전을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미국과 캐나다는 그동안 원전을 늘리고 있지 않았으므로 언급된 나라들 중 한국만 지속적으로 원전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우리나라의 원전 추진정책은 세계적인 동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이다.

## 세계 원전 개수의 변화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 개수는 23개이다. 현재 5개의 원전을 짓고 있고, 앞으로도 10개 이상의 원전을 지을 계획이다. 약 20년 후면 40개 이상이 되어 러시아(32개)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많은 원전을 짓는 한국과는 달리 세계 원전 개수는 지난 25년간 전혀 증가하지 않았고, 최근 들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림 1을 살펴보면 지난 30여 년 동안 전세계에서 원전 개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한국, 중국처럼 지속적으로 원전을 짓는 나라가 있음에도 이렇게 세계 원전 개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은 원전을 줄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나라가 원전을 줄이고 있을까?

바로 유럽이다. 그림 2는 유럽의 원전 개수 및 발전용량을 보여준다. 유럽의 경우에는 지난 25년간 약 50개의 원전을 줄여왔다. 그림과 같이 유럽의 원전 개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감소로 갑작스럽게 전환된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스리마일과 체르노빌 사고의 영향인 것으로 짐작된다. 체르노빌 핵사고는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방사능 피해를 일으켰고, 이 경험이 원전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을 크게 바꿔놓았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이런 인식은 더욱 강화되

었다.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 탈핵을 결정한 나라들이 대부분 유럽국임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유럽 최대의 원전대국인 프랑스마저 원전 개수를 줄이기로 결정하였으니 유럽은 분명히 탈핵(탈원전)으로 향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세계에서 핵발전소가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역시 지난 30년 간 단 한 개의 원전도 신규로 건설하지 않았다. 작년에 미국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 4개에 대한 건설허가가 났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원전 4개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폐쇄원전은 작년 기준이지만 건설 원전은 건설이 마무리되는 10년 이후에 계산되므로 허가된 원전 4개가 모두 완공된다 하더라도 약 10년 간은 원전 개수가 4개 줄어든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더구나 이렇게 건설 허가가 난 경우에도 실제로 원전이 건설될지는 알 수 없다. 그동안 건설허가가 났으나 실제로 건설이 되지 않았던 원전이 굉장히 많았었다. 미국은 현재 원전이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중이어서 실제로 건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 즉, 선진국들은 지난 수십년간 원전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여왔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이 그 빈자리를 채웠었다. 그러나 앞으로 선진국에

- 제 1 편 \_ 후쿠시마 핵사고의 영향
- 제 2 편 \_ 핵사고의 원인
- 제 3 편 \_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 제 4 편 \_ 그렇다면 선진국과 세계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 제 5 편 \_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 제 6 편 \_ 한국인의 피폭경로
- 제 7 편 \_ 고준위 핵폐기물
- 제 8 편 \_ 경주 방폐장
- 제 9 편 \_ 핵재처리
- 제 10 편 \_ 핵발전의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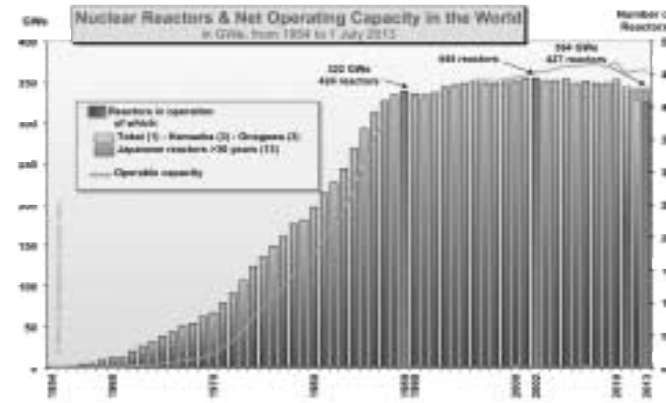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세계 원전의 개수 및 발전용량 변화. 막대그래프는 원전의 개수를 나타내고 선그래프는 원전의 발전용량을 나타낸다. 지난 25년 동안 원전 개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Mycale Schneider,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3)



그림 2. 유럽의 원전 개수 및 발전용량 변화. 유럽은 1956년 최초로 원전을 건설한 후 1988년에 정점에 도달하였다. 스리마일과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 25년간 그 수가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까지 약 50개의 원전을 줄였다. (Mycale Schneider,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3)

서 폐쇄할 원전 수가 너무나 많다. 앞으로 20년 간 약 250개의 원전이 폐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빈자리를 개도국들이 채울 수 있을까? 필자는 불가능하리라고 짐작한다. 현재 세계의 446개라는 원전 개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50개의 원전을 20년 내로 완공시켜야 하는데, 원전 건설에는 보통 10년 정도가 걸리니 앞으로 10년 내로 250개의 원전이 착공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할까? 유럽과 미국은 더 이상 원전을 건설하지 않으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과 중동지방 등에서 250개의 원전이 10년 내로 착공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최대 15개, 인도는 최대 20개, 중동지방 최대 10개, 중국 최대 50-100개 정도로 생각된다. 모두 합해도 절대로 250개의 원전이 착공될 수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20년 내로 세계 원전 개수는 100개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옳다. 원전산업은 최근 20-30년간 그 성장을 멈추었다. 선진국은 떠나고 개도국이 진출하는 산업이었다. 그래서 겨

우 그 시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이 전형적인 사양산업의 초기모습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세계 원전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 20년 내로 100개 이상의 원전이 줄어드는 등 사양산업의 후기모습이 시작될 것이다. 지난 30년 간 원자력은 사양산업이었다. 그 사실을 우리만 몰랐던 것이다. 필자가 유럽에서 에너지 관련한 활동을 해온 분들에게 유럽이 지난 25년간 원전을 지속적으로 줄여온 이유를 물었더니 공통적으로 두가지를 제시했었다. 첫째는 원자력이 위험해서이고, 둘째는 원자력이 비싸서였다고 한다. 원자력이 유럽에서는 비싸다는 사실이 매우 생소하겠지만 핵발전소의 경제성 문제는 이번 글에서는 논외로 하겠다. 이쯤 되면 독자들은 '지난 수십년간 선진국들은 원전을 꾸준히 줄여왔는데, 전기는 어디서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바로 이에 대한 답을 설명할 계획이다. 

# 돌봄의 능력, 우리 모두의 것!

글 | 백소영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HK연구교수)

이번 호와 다음 호에 걸쳐 여성과 모성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창조적 노동과 돌봄(사랑)의 삶이 통합되는 날을 기대하는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HK연구교수인 백소영 선생님의 글을 통해 돌봄의 힘을 만나봅니다.

엄마!  
필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단어이리라. 그 이름 하나에 아스라이 기억되는 따듯함과 좋은 냄새, 그리고 그리움까지! 아이에게 한없이 주는 이름이고 무조건 희생하는 이름이라서 그 이름은 언제 들어도 항상 애뜻하다. “원래 그런 거야! 원래 모성은 그래. 여자는 타고나길 그렇게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길러내는’ 품성을 갖게 되어 있어!”

정말 그럴까? 문화사회학을 전공한 나로서는 늘 배워온 대전제를 떠올려 보게 된다. 그렇다. 인간이 지어낸 문화와 사회에 원래는 없다. 처음의 사회구성원들이 살기 좋고 편리한 방법으로 만들어놓은 공동체적인 상호작용이 있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서 관습과 도덕의 위치를 차지한 문화적 관성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건 모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원시 사회에서 아가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생물학적 모성 실천이 절대적이었다. 분유도 없고 위탁시설도 없었으니 아기를 길러내는 가장 최적의, 그리고 가장 절대적인 존재는 엄마뿐이었다. 하여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 최초의 노동 분업이 발생했다. 다시 말해 여성이 유난 맞게 모성애가 강하여 아기를 기르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는 아기를 낳은 여성만이 생명을 양육할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이어서 자연스럽게 육아와 더불어 병행가능한 집안 주변의 가내 생산노동을 감당했다는 말이다. 그 역사가 실로 수만 년간 진행된 일이라 오

랜 문화적 습관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이 남성들과는 구별되게 모성애를, 생명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관심과 인내와 자비와 희생의 마음을 타고 났다고 믿어왔을 뿐이다. ‘그럴 리 없다! 그건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편협한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음의 시들을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엄마는 변덕쟁이, 난로 같던 우리 엄마 공부를 시작하면  
목소리가 확 달라져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엄마는 화산, 엄마가 화나면 머리가 폭발한다.  
엄마가 화나면 얼굴이 빨개진다.”  
“엄마는 호랑이, 엄마가 폭발하면 호랑이가 된다.  
으르렁 으르렁 살라살라, 엄마는 말로 나를 때린다.”  
“엄마는 압축파일, 내가 심술을 부리면 화를 참는다.  
내가 말썽을 부려도 화를 압축한다.  
그러다 내가 성적이 나쁘면 뽕! 터져버린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엄마’라는 제목으로 쓴 동시들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엄마는 아이들에게 ‘변덕쟁이’, ‘화산’, ‘호랑이’, ‘압축파일’이라는 은유로 묘사된다. 왜일까? 모성이 천성이라면 그 성품에 있어 변화가 없어야하는데, 20세기 중반만 해도 자애로움과 따스함의 대명사였던 ‘모성’은 왜 이렇게 다르게 발현되고 있는 것일

까? 사회적 기대와 모성의 실천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 어쩐지 슬퍼지는 ‘전문 엄마’의 등장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자주 만나는 위의 엄마들은 내가 ‘전문 엄마’라고 이름붙인 신종 모성이다. 엄마가 전문가인 집단! 현대 관료제적 사회구조 안에서 상위 관직을 차지하는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 그야말로 육아 전문가가 되어 있는 이름. 태어나 삼십 여년이 되도록 익숙한 공간이었던 공적인 삶의 칸막이를 넘어와, 사적인 가정에서 24시간 풀타임으로 가사와 육아를 감당하는 ‘전업’ 주부가 되어버린 여성들. 그동안 배운 게 ‘전문인이 되는 교육’이었는데, 그럼 우리의 전문직은 ‘엄마’ 인건가? 그러한 해석 속에 어느덧 내가 못 이룬 공적 성취를 아이를 통해 이루고자 아이의 매니저가 되어버린 엄마들! 아이들과의 관계를 오직 공적 평가의 기준인 ‘성적’과 관련해 형성된 ‘전문 엄마’들! 그러니 자녀들이 읽어내는 모성은 마치 전투기계와도 흡사할 밖에.

결국 모성은 구성된 것이라고요? 사회제도가 변화하면서 모성 실천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고 이를 사회화, 내면화한 문화적 결과물이라고요? 답은 예스(Yes), 그리고 한편으로 노(No)이다.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신학자로서, 나는 ‘낳아진 모든 생명체’는 자기보다 어리고 연약한 생명체를 향한 사랑의 본성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건 오직 여성에게만 주어진 본성이 아니다. 남성도, 아이들도,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모두 가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제도가 누구에게 그 성품을 개발하도록 기대하고 과제를 부여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도록 구성되었는지, 또 누구에게는 그 성품을 발휘할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는지에 따라 ‘전적인 것’으로도 ‘왜곡된 형태’로도, 또 ‘삭제된 형태’로도 존재해왔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 아빠도 가능한 돌봄의 능력!

〈아빠, 어디가〉〈슈퍼맨이 돌아왔다〉등의 프로그램을 보라. 불과 몇 번의 ‘돌봄 노동’ 만으로도 아빠들은 금세 아

이들과 눈을 맞추고 기다려주고 보살펴주고 씻기고 입히는 ‘엄마 같은 능력’을 찾아내지 않던가! 아빠들끼리 둘러앉아 하는 대화가 ‘뭘 먹일까?’ ‘무슨 옷을 챙겨 올까?’ ‘아이에게 어떤 교육이 좋을까?’ 이런 걸 걱정하고 있지 않던가! 그동안 현대사회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공간을 이분화시켜 남자들을 온통 생산 영역으로 몰아내고 육아의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자기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어린 아이조차 병아리, 아기고양이, 강아지를 보면 ‘예쁘다’ 어루만지며 그 손길을 조심한다. 행여 그 작은 생명체를 다치게 할까봐. 그런 거다! 인간은 자고로 ‘돌봄의 능력’을 타고 났다. 그건 ‘어른 여자’만의 몫이 아니다. 가장장적 문화조건이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오직 ‘여성’의 몫으로만 돌려와서, 그리고 불과 200년도 채 안된 현대적 문화조건은 그걸 오직 ‘전업’으로 수행하는 엄마들의 몫으로만 돌려놔서, 우리가 ‘여성=엄마=모성’의 등식을 ‘당연시’ 여길 뿐! 실은 모든 낳아진 생명체에게는 있는 품성이다. 돌봄의 능력 말이다. 하여, 기능적 편리함이나 효율성의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 ‘여성의 전적 모성실천’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내 보기에는 부정적이다. 더구나 이를 ‘신적 질서’라 신성화하며 많은 기독교 여성들에게 ‘전적인 모성 실천’을 소명인양 가르치는 것은 반(反)하나님적이다. 하나님은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주체로서 무언가를 세상에 지어내고 표현해낼 때 비로소 살아있는 기쁨을 느낀다. 또한 사랑하고 사랑받고, 돌보고 돌봄을 입는 관계 속에서 행복함을 느낀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이렇게 ‘창조적 자아’이면서 동시에 ‘관계적 자아’이다. 우리의 이러한 통전적 능력을 오직 반쪽짜리 ‘전적’으로 감당하라는 삶의 구조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 않다. 인간이 지음 받은 그대로 나이면서, 엄마이면서.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창조성과 관계성을 조화롭게 가꾸어나가도록 우리 삶의 조건은 바뀌어야 한다.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의미 있게 변형해온 우리 인간 공동체의 21세기적 과제이다. 

# 인권에 관한 국가의 법적인 의무, 사회권규약

글 | 김정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인권담당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또는 “사회권규약”, 이하 “사회권규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또는 “자유권규약”, 이하 “자유권규약”)은 1946년 이래 약 20년간의 격론 끝에 1966년 12월 16일 채택되어, 각각 1976년에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호에서 설명드린 대로 냉전 대립관계의 복잡한 국제정치 상황 덕분에 두 규약 모두 논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4년 3월 말 현재 사회권규약은 161개국, 자유권규약은 167개국 가입 비준하여 이 규약들의 구속을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1990년 4월 10일에 두 규약의 가입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 인권 보호의 필수적인 요건, 자결권

이번 호에서는 사회권규약의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의 두 규약의 전문(前文)은 인류사회 구성원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와 기초가 되고, 이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에 유래함을 인정한다는 유엔(UN) 헌장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가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을 때 인간의 이상(理想)이 실현될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인권과 자유를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국가의 의무와 타인과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규약의 전문에 등장하는 자결권(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영위해나갈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의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자기 발전을 위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결권은 그 자체가 권리로 보장, 확보되어야 여타의 개별 권리가 의미있게 보호,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핵심

적이고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의 보장이야말로 인권 보호 장치를 확보하고 강화하는 필수적인 요건인 셈이지요. 여러분이 익히 짐작하시는 것처럼, 자결권은 독립, 비간섭 및 민주주의 등의 맥락에서 유엔이 창립될 때부터 초미의 관심 주제가 되었고, 특히 과거 피식민 및 점령 국가 뿐만 아니라 최근 국가 내 분리 그룹들에 의해 출기차게 제기되어 오는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 인권에 관한 국가의 법적 의무

사회권규약 제2조는 국가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사회권규약은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실현해야 하는 다차원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존중), 제3자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지해야 하고(보호), 국민들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증진), 국민들의 인권을 점진적으로 실현해나갈(실현) 의무를 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국가가 인권의무를 위해 어떤 행동을 취했다고 또는 취하지 않았다고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가의 인권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증진되었

는가 하는 결과로 의무이행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회권규약이 이행과 관련해 “가용자원 최대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회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권을 실현하는 데에는 상당한 재정적 자원이 소요되고 실제 이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고, 이와 더불어 저개발 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재정 부족문제를 이유로 사회권규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려는 핑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권규약은 점진적 이행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자원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사회권 실현을 등한히 하는 것을 막고, 할 수 있는 최대한 실현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사회의 경제적 기술적 지원 및 협력을 통해서라도 이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인권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사회권위원회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을 포함한 국제인권조약은 국가가 가입 비준하게 되면, 4~5년마다 정기적으로 해당 조약을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약심의기구(treaty body, 이하 “위원회”)에 보내 정기적인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 검토 및 당사국과의 대화를 통해 해당 조약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견해와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작성하여 당사국에 보내고, 당사국은 다시 심의 시까지 권고 내용을 이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권 규약처럼 해당 조약이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에 있어서, 당사국이 선택 의정서에 가입 비준한 경우, 당사국 국민들은 조약에 명시된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이라 정기 보고서

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아 아직은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관한 가장 최근의 사회권위원회 심의는 2009년 11월이었습니다. 사회권규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제3차 정기보고서 심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노동권이었습니다. 사회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노동인권 상황 전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하였습니다. 노동 인력 중 비정규직 편중 및 여성 비정규직 편중문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부족한 사회보험 및 부당하고, 최저임금법의 매우 제한된 적용 및 미준수, 회사에 대한 처벌 미약, 직장 내 만연한 성희롱 및 이에 대한 법적 부재, 공무원과 교수의 노조 활동 제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착취, 차별, 임금 미지급 문제 등이 주된 사안이었습니다.

2009년 사회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상황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제시한 권고사항을 그동안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YWCA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의 이행여부와 관련하여 사회권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생각해봅시다.

-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의 전문을 찾아 읽어봅시다.
- 대한민국의 제3차 사회권규약 이행 보고서 및 사회권위원회의 심의 최종견해를 찾아서 읽어봅시다.
- 사회권규약에 나와 있는 인권 주제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와닿는 인권 주제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보장권과 관련하여, 모든 사회보장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사회보장권이 실현되는 걸까요?
- 사회권과 관련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OHCHR에서 발간된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 YWCA와 함께 자라온 5남매 Story



사진소개 : 왼쪽부터 첫째 김주영, 셋째 김소영, 다섯째 김진환, 엄마, 넷째 김은영 세종Y 청년회원 가족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청년Y 활동을 하고 있는 5남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남매일 뿐 아니라 '진짜' 남매, 맞습니다!! 저희는 청소년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며 세종Y 청소년부 간사 홍진영 선생님께서 YWCA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서히 Y화 되어가며 Y의 운동에 함께 하는 참여자, 적극적으로 돕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5남매는 모두 청년이 되었고, 청소년 시절부터 현재까지 대학생으로써 성인으로써 Y와 함께 자라왔습니다. 저희 남매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실래요?



### “응답하라 오남매” - 첫째 김주영(32세)

저는 첫째 김주영입니다. 지금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종Y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대학교에서 조교로 일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평소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잘 잡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조교를 그만둘 무렵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Y에서 평소 활동했던 것을 좋게 보셨는지 인터뷰를 한 번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겐 기회였죠. 짧은 인터뷰와 정식 면접을 거쳐 드디어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Y와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동생들이 Y를 통해 성장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중심을 지키며 단단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흐뭇해집니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다” - 셋째 김소영(25세)

저는 세종Y 회원이자 직장인인 김소영입니다. 저는 평소에 Y에 대해서 많이 듣고 접했지만 직접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누군가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다'고 장난삼아 말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맞습니다!



###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 넷째 김은영(23세)

저는 넷째 김은영입니다. 저는 청소년 때부터 Y활동을 했는데, Y-틴으로 가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경험이 있어요. 대학생이 되어서 Y의 많은 활동들을 참여하다 Y-틴 청소년위원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래교실 학습지원교사, 필리핀 해외봉사도 다녀왔고요. 물론 그 과정이 모두 평탄한 건 아니었어요. 다양한 봉사활동도 하고, 대학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자퇴하려고 하기도 했거든요.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파주에 있는 둘째 언니네 몇 개월 동안 가 있다가 돌아왔는데, 마침 어린이집에서 보조 인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기독교교육과였기 때문에 보조 교사로 들어갔죠. 지금 생각해보면 길을 못 찾고 계속 방황했는데, 크게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주신 것들이 참 감사해요. 그 덕분에 제가 지금 또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거겠죠?^^



### “YWCA와 함께 한 나의 질풍노도” - 다섯째 김진환(21세)

5남매 막둥이 이들이자 현재 군부대에서 특전부사관으로 복무중인 진짜 사나이 김진환입니다. 저의 청소년기는 YWCA를 통해 TV 프로그램 무한도전보다 더 많은 도전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Y-틴으로 활동하면서 소록도 봉사, '애들아 밥먹자' 활동 자원봉사, Y-틴 밴드 등 다양하게 활동하며 자원봉사도 활발하게 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몇 명 갈 수 없는 한일Y 청소년협의회에도 선발되어 일본에 다녀오면서 탈핵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도 해보고 크게 감동도 받았고요. 그렇지만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중고등학생 시절 고민하고 방황하고... 3년쯤 전이었어요. 마음은 툭툭툭, 기분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매일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시간 낭비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홍진영 선생님을 통해 Y-틴에 오게 됐죠. Y활동을 하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가끔은 괴롭기도 했지만 대체로 즐거웠던 것 같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직접 만나기보다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편인데, Y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직접 만나고, 그 만남에서 무궁무진한 것들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즐거움이 정말 큰 것 같아요.

둘째 김민영(여, 30세)씨는 파주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 관계로 세종Y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5남매, 앞으로도 쭉~욱 세종Y와 함께 하는 청년회원이 되겠습니다!!

# 2014년 제1차 사무총장협의회



지역별 탈핵운동 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숍 (2014. 03. 19)

지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버들캠프장에서 2014년도 제1차 YWCA 전국사무총장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전국사무총장협의회에서는 올해 주력운동인 '탈핵운동'을 통한 지역운동성 강화 를 주제로 지역운동으로서의 탈핵운동 전략과 운동가로서의 자기 사명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민단체의 활동 환경 변화에 따른 모금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유하기 위한 특강이 진행되었다.

사무총장협의회 첫 번째 시간으로 탈핵운동의 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지역위원회별로 그룹을 나누어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탈핵운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보다 구체적인 탈핵 실천과제를 정리하였다. 회원 Y의 사무총장들은 지역운동의 관점에서 '지역운동으로서의 탈핵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토론을 했다.

이어 장운재 교수(이화여대 기독교학부)가 탈핵운동과 파수꾼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연단에 섰다. 핵과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핵으로부터 오염되고 파괴된 창조세계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다시금 기억할 것을 강의했다.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일구며, 정의를 세우는 일에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이사야 6:8)라고 고백한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와 같기를 바라며, 탈핵운동가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번 사무총장협의회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어린이집, 복지관의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여 YWCA 부속시설 운영에 대한 현안과제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각 부속시설이 당면한 문제와 고민을 공유하며, 이밖에도 회원 Y 본부에 바라는 바를 이야기했고 더불어 회원 Y 사무총장들은 부속시설과 부속시설장에 기대하는 것들을 함께 터놓고 이야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천진 목사(궁정교회)가 인도한 저녁 기도회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은 인간이 만드는 신화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나의 신화, 인간의 신화를 쓰는 것이 아닌 Y실무자로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확신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무총장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헌신의 기도를 드렸다.

둘째 날 시민단체의 활동 환경 변화에 따른 모금사업의 필요성을 알리는 최영우 대표(도움과 나눔)의 특강이 진행됐다. 지속적으로 Y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중요하므로 모금 사업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공유했다. 또한 모금의 관점에서 YWCA의 전략적 상황을 분석하고 주요 시민단체의 모금 유형과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Y에 맞는 모금 전략을 수립할 것을 설명했다. 이번 사무총장협의회를 통해 전국 회원 Y의 사무총장들은 Y특성을 반영하는 활동이 결국은 모금사업의 토양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사무총장으로서의 헌신과 사명을 다짐했다.

(글 : 연합회 지역운동국 간사 **이혜련**)

# Y다운 리더가 되겠습니다!



키다리학교 입학식에서 발표를 하는 키다리들 (2014. 03. 29)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에 안양Y에 Y-틴으로 들어와 키다리활동을 하게 된 이예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활동들을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새 제가 언니, 누나가 되어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 입학식 갔을 때를 생각해 보니 대부분이 언니 오빠들이어서 따라다녔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끌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예전 언니 오빠들이 했던 걸 보면서 배웠던 리더십을 이제야 써먹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입학식에 선 새로운 친구, 동생들이 많이 와서 좋았고,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넸던 거 같아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는 걸 보면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입학식을 다녀오고 안양Y 키다리들과 더 열심히 함께하자고 다짐했어요. 함께하는 키다리들이 너무너무 좋고 2014년 올해 활동이 너무 기대됩니다~^^ (글 : 안양Y Y-틴 **이예지**)

3월 29일 세종Y 청년의 이름으로 키다리 입학식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서울역에 내려 지하철을 타고 얼마 지나지 않고 내려서 조금 걷다보니 목적이인 이화여대가 보였다. 꽃들이 만발하고 사람들이 많은 이화여대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설렘으로 가득 찼다. 이화여대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마침내 키다리 입학식이 열리는 포스코관을 찾았다. 그곳에서 점심을 간단히 먹으면서 다 모이기를 기다렸다. 다 모인 후에 키다리들끼리 어색해하지 않기 위해서 실무자 선생님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미션을 하면서 어색함을 풀어나갔다. 본격적으로 회원 Y별로 준비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내가 속한 세종Y에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젊은 리더들의 북한 품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개를 시작했다. Y의 목적문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작은 불씨운동을 일으키고 바로 선 리더들의 영향력을 통해 이 불꽃이 확산되어 통일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주제였다. 소개할 때 동영상 준비해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영상의 내용은 독일의 통일배경에서 시작이 된다. 독일의 통일을 소망하던 사람들은 3%밖에 되지 않았다. 그들은 촛불기도회를 통해 그 소망을 점점 더 확산시켜 나갔고 결국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아마 우리가 그 3%의 사람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 지니라" (잠 31:8-9)는 말씀이 있다. 불의한 일을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우리는 Y다운 리더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우리 리더들이 할 일이다. 그동안 한 나라의 청년으로서 무관심하며 살았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방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기도하고 바로 알고 찾아보고 두드리고 알리려 한다.

(글 : 세종Y 청년Y **고대성**)

# 우리 아이에게 안전한 공공급식을!



4월 2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관련 우수급식산업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이하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부천시의회 한혜경 의원과 방사능 안전급식조례제정을 위한 부천시민사회네트워크(부천YWCA, 부천YMCA 등대생협,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여성노동자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시의원·공무원, 일반 시민, 학부모, 아이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던 공청회 현장을 찾았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공급식 제공을 위해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부천시민사회네트워크 사무국을 맡은 부천YWCA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진흥형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공개됐다. 이들이 만든 조례안은 4개월여 논의 끝에 완성된 것으로, 형식만 갖추고 있는 '규제형 조례'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진흥형 조례'를 처음으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전국 지자체 및 시민사회가 부천의 첫 조례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부천YWCA 심명자 회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방사능 사고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으로 인한 방사능 내부 피폭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포 분열이 왕성한 영·유아, 청소년들에게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하며 공청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선재 부천시의회 의장, 김정기 행정복지위원장, 서강진·윤병국 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어린이를 동반한 학부모들의 참석이 두드러졌다.

### 발제자① 최봉석 교수(동국대 법과대학)

#### 전국 최초 진흥형 조례 제정이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이어질길

환경법에는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까지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규제 일변도의 조례가 아니라 잘하는 것을 권장하는 발상의 전환에서 만들어진 게 부천시민사회네트워크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진흥형 조례이다. 방사성물질이 없는 공공급식의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진흥형 조례 제정을 통해 시장과 기업을 움직이게 해서 안전한 무상급식을 이뤄야 한다. 사실 규제수단과 규제정도의 한계로 인해 조례 제정 이후에도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급식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상위법에 규제하지 않는 것을 하위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조례를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쉽게 말해 국민이나 시장(기업)에게 아주 낮은 수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일정 권리나 의무를 지우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해놓은 법률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특히 환경법은 언제나 시장과 충돌하게 된다는 점에서 완벽한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 중요한 것은 진흥형 조례 제정으로 시장을 움직이게 함과 동시에 시민참여의 감시체계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진흥형 조례가 부천에서 그 열매를 맺을 경우 타 지자체로의 확산은 물론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가는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 발제자② 한혜경 시의원 (부천시의회)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공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자

방사성물질은 기준치 이하라 해도 성장기 영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집단급식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방사성물질이 든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내부 피폭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있고,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밀검사장비 구입 및 인력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렵고,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가 급식 후 나온다는 점에서 사후적 조치에 불과해 사전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진흥형 조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공공급식에서 급식업체가 식재료 납품 전 방사능검사 및 검사결과를 공개하여 방사능 안정성을 입증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와 검사장비 구입, 검사비와 교육비용 등의 보조를 통해서 공공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공공급식'의 정의를 학교급식 외에도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적용케 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설치해 평가 및 인증, 검사,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게 하고 있다. 위원회는 총 15인으로, 공공급식시설에서 추천한 사람 2명, 부천시친환경급식지원센터 1명, 부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추천 1명, 각 구별 학부모 3명, 급식안전모니터링단 1명, 시의회 의장 추천 2명 등으로 구체적인 위원구성을 명시했다. 진흥형 조례의 골자인 방사능 안전급식 인증 부분에서는 '인증검사를 통과한



진흥형 조례안에 대해 청중들과 소통하는 발제자들과 토론자들 (2014. 04. 02)

급식업체에 방사능안전급식업체 인증을 할 수 있다'고 못박았으며, 방사능 급식안전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교육이수 인증의 증서와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도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식재료 검수와 공급업체 및 공공급식시설의 현장 점검을 가능하도록 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국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전국 최초 진흥형 조례안인 만큼 전국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례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부천시민아이쿱생협 한금희 이사장은 부천아이쿱생협의 방사성물질의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과정의 어려운 점을 토로했으며, 진흥형 조례에서 대형 업체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부천부인중학교 정인숙 학부모는 조례안이 담고 있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서 이 조례안이 나오지 않았다면 학교도, 학생도, 학부모도 방사능 물질 때문에 계속 불안해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조례안 제정을 환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간을 한참 넘어서까지 열기가 식지 않아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도 모두들 쉼자리 자리를 뜨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진흥형 조례가 부천시의회에서 통과되고 이 조례가 전국 지자체로 퍼져나가기까지 모두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글 | 편집실

2014년 4월 17일 부천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흥 조례가 원안대로 전원 찬성 가결되었습니다.

# 건강한 식단으로 아이들의 생명 살린다




이종임 연구원장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조리사·원장들 (2014. 03. 29)

글 | 권미숙 (부산 강서YWCA 어린이집 조리사)

지난 3월 29일 '어린이집 조리사 역량강화 워크숍'에 원장님과 함께 가면서, 한국YWCA연합회에서 전국YWCA어린이집 조리사님들과 함께한다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도착하여 건강식으로 깔끔하게 차려놓은 식사를 맛나게 하고, 여는 예배를 드렸다. 한국YWCA 소개 영상을 보며 낯은 곳에서의 수고와 섬김을 통한 열매들이 느껴져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뿌듯함과 마스함이 전해져 왔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대한식문화연구원 원장이며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인 이종임 원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어린이 식생활'이란 주제로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어릴 때부터 친환경 음식재료, 제철식품, 천연조미료를 이용한 착한 먹거리로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며 균형 잡힌 식단과 저염식을 제공해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내가 그 일의 중심에서 있다는 책임과 사명을 깊이 새기게 되었다.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의 사용을 줄이며, 엄마가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밥상'을 차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본다.

글 | 임성숙 (제주 YWCA 어린이집 원장)

한국YWCA 복지사업단에서 전국 26개 YWCA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보육실태현황의 평균 인가정원에 비해 Y어린이집이 평균의 2배 정도 현원이 높은 편이고, 입소대기자 인원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YWCA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는 신뢰성과 Y어린이집만의 차별성에 더하여 Y의 생명사랑공동체운동의 일환으로 건강한 먹을거리, 생명을 살리는 먹을거리운동을 Y어린이집에 실천하고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서 Y만의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본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먹을거리 문화에서부터 바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이해와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식생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20대에서 30대 초반 교사들을 보면 인스턴트와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 자라온 세대들이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즐겨먹고 선호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 Y어린이집 조리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조리사 선생님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식품첨가물을 확인하는 모습, 저염식으로 조리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의 효과와 영향력을 새롭게 느낀다. Y의 기독교정신과 중점운동을 통해 생명사랑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교사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해서 조리사뿐만 아니라 Y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연수에서도 Y다운 교육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연수의 기회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생명의 바람

글 | 이천진 (공정감리교회 담임목사)

에스겔 37장 1절-10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에스겔 37:1)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 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에스겔 37:2)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에스겔 37:3)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서는 아십니다."

(에스겔 37:4)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에스겔 37:5)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에스겔 37:6)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갓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37:7)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에스겔 37:8)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갓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에스겔 37:9) 그 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에스겔 37:10)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아 답하십시오.

- 01) 누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까? (37:1)
- 02) 골짜기 바닥에 무엇이 많았습니까? (37:2)
- 03) 하나님은 뼈에 무엇을 불어 넣어 살아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37:5)
- 04) 대언을 할 때에 어떤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까? (37:7)
- 05) 뼈들 위에 무엇이 뻗치고, 무엇이 오르고, 살 위로 무엇이 덮였습니까? (37:8)
- 06) 그런데 그들 속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37:8)
- 07) 무엇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습니까? (37:10)

주님의 영(the Spirit of the Lord)이 예언자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갔습니다. 뼈들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the Spirit of the Lord)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죽은 뼈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뼈에 생기를 불어 넣어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기를 바람 또는 영으로 주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입니다. 생기, 성령의 바람이 뼈에 들어갔습니다. 뼈가 살아났습니다. 제 발로 섰습니다. 엄청난 큰 군대였습니다.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에스겔의 환시, 라파엘로 산치오(Raffaello Sanzio)

1940년, 독일에서 히틀러는 사위실에 사람을 넣고 독가스를 집어넣어 사람을 죽였습니다. 600만 명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젊은 신학자 본회퍼(Dietrich Bonhoeffer)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수많은 살육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입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족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배하고 싶거든 하나님 없이 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없이 찬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없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마른 뼈들이 쌓일 수 있습니까?” 본회퍼가 보았던 마른 뼈가 에스겔 3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우리 앞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Q: 핵에너지는 생명을 살리는 생기입니까? 생명을 마른 뼈로 죽이는 기운입니까?


20세기는 자연과 인간이 갈등한 역사였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대립은 지구를 죽이는 죽임의 놀이였습니다. 정현경 교수는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7차 WCC 캔버라 총회 주제 강연에서 “인간중심주의로부터 생명중심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존경하듯이 지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죽임의 문화에서 살림의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분이 성령입니다. 인간중심주의가 아닌, 생명중심주의를 사는 사람이 성령을 모신 사람입니다. 미래 사회에서 자연과 인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제3의 길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평등하게 서로를 살리는 생태적 민주주의의 영성, 살림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이 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마른 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Q: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마른 뼈로 만드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까?

카타오카 테루미(片岡輝美)는 1961년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에서 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지점에서 100킬로미터 반경 내의 아이즈와카마츠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사고 이후 방사능 피해 진상 규명과 모니터링 사업, 특별히 방사능으로부터의 어린이 건강 피해 조사 사업 및 피해자 지원 활동 등 탈핵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친과 남편이 목사인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후쿠시마현에서는 매일 ‘힘내라 후쿠시마! 부흥을 위하여’ 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탈핵, 탈원전을 바라는 우리들은 그 말에 찬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후쿠시마현을 위한 부흥일 뿐이지 우리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벌써 3명의 어린이가, 100만 명 가운데 1~2명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 갑상선암으로 고생하고 있고, 7명의 어린이가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중략) 아직도, 16만 명 이상의 후쿠시마 주민이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없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강연하는 카타오카 테루미 (片岡輝美)씨 (2013. 04. 23)

또한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물을 선택하거나 노는 장소를 선택하는 데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3천 명의 핵발전소 작업원이 방사능선량이 많은 고선량의 핵발전소에서 뒤처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크고 작은 지진이 날 때마다 매번 원자로가 갈라져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다시 멈춰있는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중략)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에 대한 성찰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는 인간의 오만에 의해 야기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아이들에게 큰 죄를 범해버린 것입니다. 이미 3·11이전으로는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엄청난 심각한 현실을 앞에 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희망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후략) 그녀는 생명을 사랑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생명의 바람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Q: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 ‘바람 바람 꽃’

차옥혜님의 시

바람이 부네 / 바람이 부네 / 밝혀 일어서지 못하는 풀들 / 일으키려 / 바람이 부네 //  
 두더지가 굶아먹은 뿌리 / 그 상처 어루만져 / 잔뿌리 키워 주려 / 바람이 부네 //  
 가뭄에 목 타는 잎새 / 싱싱한 푸른 잎으로 / 다시 살라고 / 바람이 부네 //(중략)  
 하늘을 열고 열어 / 눈부신 새 빛을 풀들의 가슴에 안기려고 / 바람이 부네 / 바람이 부네

# YWCA는 사람입니다

## - 하나님나라 소명 이루려는 '거룩한 바보' 찾는 운동

글 | 명진숙 (연합회 지역운동국 국장)

연합회가 있는 서울 명동의 모습은 참 다양하다. 그중 단연 눈에 들어오는 광경은 무엇인가를 사려고 줄지어 선 사람들의 대열을 보게 될 때다. 요즘 사람들의 참을성이 예전보다 없어졌고, 그래서인지 약속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사람들의 항의가 당연한 듯 반복되는 일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줄지어 서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스스로 불편을 감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자신에게 기쁨을 줄 것에 대한 기대와 보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곳에서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비용과 시간은 당연하게 다른 측면에서 평가되는 것 같다.

영리조직에 '고객' 이 있다면, 비영리조직인 YWCA에는 '회원' 이 존재한다. 회원이란 조직이나 기관이 지향하는 목표에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가진 유형, 무형의 자원을 기꺼이 나누려는 이들로, 때로는 약삭빠르게 돌아가는 이해타산을 바탕으로 한 세상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나라의 소명을 이루려는 '거룩한 바보' 로 지칭되기도 한다.

###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흠어지는 공동체

매년 YWCA는 회원증모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985년 전국대회에서 건의되면서 시작된 회원증모운동은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 꿈에 함께 할 사람을 찾고 만들어 가는 과정

이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5부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원증모 전략수립 워크숍' 이 개최되었다. 지난 3월 17일, 서부지역을 시작으로 24일 동부지역, 26일 북부지역, 27일에는 경기와 중부지역에서 차례로 열렸다. '회원증모 전략수립 워크숍' 의 열기는 놀랍도록 뜨거웠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물론 회원증모운동의 의미와 이사회의 역할을 다짐하는 한편 회원증모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이야기되었다.

워크숍에서 중요하게 제기된 것은 먼저 회원운동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것이다. YWCA 영성교재인 '새벽 종소리' 에서 지적된 것처럼,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흠어지는 교회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과 시민 속에서 기독교운동을 하는 기관이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역시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뜻과 참여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회원증모' 인 것이다. 사실 회원이 없이는 YWCA가 존재할 수 없으며, 새로운 회원이 늘어나고 활발히 활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운동은 '살아있는' 운동이 아니라 '죽은'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YWCA는 사람이다!

사실 회원증모가 말처럼 쉽지는 않다. 회원Y의 이사와 실무자 중에는 YWCA의 활동은 대개 좋은데, 회원증모만은 정말 싫다는 말을 하는 이들도 있다. 알지만 힘들고, 해야겠지만 어려운 '회원증모'. 그럼에도 "YWCA는 사람입

니다" 라는 고백처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호흡하기에 그 부담스럽고 어려운 과정을 기꺼이 나서겠다는 다짐이 워크숍에서 뜨거운 함성으로 모아졌다.

회원증모과정에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사회와 실무자들이다. 비영리조직의 주요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자치성(self-governing)이다. 자치성이란 비영리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YWCA의 활동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들라면 주저할 것 없이 이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많은 비영리조직의 경우, 대부분의 활동과 의사결정들이 사실 실무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이사회가 있다고 해도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이사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를 보일 때도 많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사회를 통해 이사로서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책임지고 계획하며 참여하는 과정은 기관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자기 고백이며,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된다. 더 나아가서는 회원들이 운동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과정을 결과한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회원Y의 이사들은 회원증모과정에 이사회 및 이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며, 앞으로 더욱 잘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모았다.


### 지역사회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

한편 회원증모를 위해 다양한 경험과 방법론을 나누는 시간도 있었다. 그동안 성공적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험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은 회원모집을 '과제' 로서가 아니라 '축제' 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바로 '회원증모운동' 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회원이나 청소년들이 YWCA와 만날 수 있는 장으로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회원증모 전략수립 워크숍' 에서는 다양한 방법론도 논

의되었다. 첫째, 회원증모 대상을 발굴하기 위하여 원래 목표한 인원보다 많은 2배수의 명단을 작성하고 Y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휴면회원을 포함해 기존회원을 세분화해서 그 상태에 맞는 대상별 접근을 시도하기로 했다. 또한 목회자 사모 초청 오찬회 등을 개최해 Y의 활동을 교회에 알리는 작업도 소개되었다. 둘째, 회원관리를 위한 방법도 활발하게 제안되었다. 회원을 증모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관리하고, 관심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 그리고 전화나 문자알림으로 계속적으로 소식을 나누기로 하였다.

또한 활동을 하며 만난 사람들과 거러쳐 관계자까지도 후원자로 발굴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회원을 모집할 때, 가급적 CMS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증모기간 내 1인 이상을 평생회원으로 만들자는 안도 나왔다. 더 나아가 Y운동에 실제적으로 참여해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회원Y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초대하기로 했다. 회원활동에 대한 피드백으로서 지지와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한편 지역에 따라서는 회원Y를 회원증모를 위한 멘토-멘티로 묶어 성공사례와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하였다.

워크숍이 끝난 후, 회원Y 차원에서는 회원증모 발대식이 열리고 있으며, 연중 내내 회원증모운동이 펼쳐질 것이다. Y 차원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활동은 Y가 회원운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과정이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YWCA가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회원증모운동은 전국에 있는 Y 회원들이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동료애를 느끼며, 생명사랑공동체를 위해 활동할 우리사회의 선한 일꾼을 찾아가는 실천적 현상이 될 것이다. 

# 연합회 소식

## 4월 월례아침기도회



4월 월례아침기도회가 4월 1일 오전 8시 연합회 강당에서 있었다. '시대의 징조' 라는 제목으로 최대광 부목사(정동제일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Y지도자들은 사명을 되새기며 '탈핵운동'을 비롯한 한국 Y의 중점운동을 통해 Y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자세한 내용 P.4~)

## 거제Y가 주관하는

### 제5차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매주 화요일 열리는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이 4월 8일로 제5차를

맞이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수명 연장을 하여 가동 중인 위험한 고리 1호기 인근 앞바다 지역인 거제Y 회원 11명이 불의날 캠페인을 주관했다. 거제Y 회원들은 1986년 4월 발생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태의 결과를 알리며 신규 원전 건설 반대와 노후 원전 폐쇄 서명운동을 벌였다. 한편, 지금까지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원전 건설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520여 명이며, 연합회와 52개 회원Y는 6월 5일 환경의 날까지 전국 캠페인 부스에서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 POSCO-YWCA가 함께하는 건강한 학교문화 만들기 '우리학교는 친친 와이파이즌'



2014년 친친 와이파이즌 친친공감프로그램 신규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사교육이 3월 21일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2014년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6개 회원Y(서울, 광양, 대전, 포항, 파주, 충주)에서 총 58명의 신규강사들이 교육에 참여해 친친공감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공감프로그램에 대한 목적과 이해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친친공감프로그램의 교

육은 온라인교육(6주차)과 오프라인 교육(2회)으로 이루어지며 공감프로그램에 활동하는 기존강사와 신규강사는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남성 4인조 그룹 스위트로우의 재능 기부로 친친 와이파이즌 홍보영상이 제작됐다. 4C(대화·이해·소통·돌봄과 치유)를 통한 건강한 학교문화 만들기를 위한 희망메세지로 구성된 홍보영상은 EBS(한국교육방송공사)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연구모임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동안 Y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21명, 연합회 실무자 2명 총 23명이 모인 가운데 2014년 1차 관장연구모임이 진행됐다. 고용복지종합센터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장기적으로 여성의 고용, 취업, 복지에 대한 정책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 2014년 제1차 YWCA 1단계 실무자 교육

2014년 제1차 YWCA 1단계 실무자 교육이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벼들 캠프장에서 있었다. 1년 미만의 YWCA 실무자 64명을 대상으로 YWCA 목적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YWCA 목적과 정체성(유성희 사무총장)', 'YWCA 운동의 이해(최만자 전 실행위원)', 'Y운동가의 비전과 사명(이천진 목사)',

'Y운동가로서 살기(차경애 연합회 회장)'의 강의가 이어졌으며, 신입 실무자들이 선배 활동가와의 만남을 가졌다.

## 2014 제1차 Y-틴 중앙임원회의



3월 22일 연합회 강당에서 Y-틴 중앙임원회의가 개최됐다. 전국 Y-틴 협의회 박하나 회장을 비롯한 총 9명의 임원들이 모여 Y-틴 활동 주제인 '탈핵'에 대해 공부하고, 올해 Y-틴 활동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 어린이집 조리사 역량강화 워크숍

2014년도 어린이집 조리사 역량강화 워크숍이 3월 29일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어린이 식생활과 저염식 아동요리의 실천 강의(이종임 실행위원), 그룹별 토론, 원장연구모임으로 진행됐다. 어린이집 조리사, 원장 등 총 37명이 참석했다.(자세한 내용 P.30~)

## 키다리학교 입학식

3월 29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9개 회원Y(서울, 고양, 안양, 청주, 대전, 평택, 세종, 부산, 광주)에서 90여 명의 청소년, 청년들이 키다리학교 입

학식에 참가했다. 한 해 동안 통일, 평화, 인권 등을 주제로 하여 활동할 토요대안학교 키다리학교를 통해 'Y-다운 리더'로 성장할 것이다.(자세한 내용 P.27~)

## 새일센터 운영 관련 협의

3월 31일 연합회에서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는 5개 회원Y(남양주, 동해, 양산, 세종, 충주) 사무총장이 모인 가운데 고용복지종합센터 관련 현안 공유 및 지역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연구에 대해 논의했다.

## 다래교실 2013 우수교사 시상식 · 2014 협약식 · 제1차 교사교육



4월 3일 다문화청소년 방과후 학습지원 프로그램-다래교실 2013년 우수교사 시상식 및 2014년 협약식이 연합회 강당에서 진행됐다. 전국 17개 회원Y 및 7개 협력기관에서 진행된 2013년 우수교사 시상과 더불어, 올해 다래교실의 시작을 알렸다. 한국 씨티은행 관계자를 비롯해 총 33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에 앞서 4월 2일에는 다래교실 제1차 교사교육 및 실무협의회가 있었다. 2014년 다래교실 교사 19명, 실무자 23명 등 총 42명이

참석했다.

## 지구시민자원활동가 '도스뜨'

YWCA-외환은행나눔재단이 함께하는 인도에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에 함께할 '도스뜨(자원활동가)'를 선발했다. 이들은 자신의 재능으로 인도의 마을에서 2개월간 인도 청년들과 함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며 보건, 교육, 직업개발 구축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 제18회 좋은 TV 프로그램 상

올바른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방송제작자를 격려하고자 제정한 좋은 TV 프로그램 상이 올해로 18회째를 맞았다. 생명, 여성, 평화, 청년·청소년 부문별로 좋은 TV 프로그램 추천을 받고 있으며, 올해 시상식은 5월 23일 개최할 예정이다.

## 동정

- 신입 사무총장  
류인숙 사무총장(제천Y)  
이혜정 사무총장(청주Y)
- 연합회 신입 직원  
김미애 간사(복지사업단)  
엄효정 간사(사무)  
전하에 간사(홍보출판)

북부

서울YWCA | 박서영 간사

이사·위원 연구모임



2014년 이사·위원 연구모임을 3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200여 명의 이사, 위원, 직원이 모여 예배와 강의를 통해 Y자원활동가로서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김익중 교수(동국대 의대)는 '책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라는 강의로 탈핵을, 이천진 목사(공정교회)는 'YWCA는 회원운동 단체이다'라는 강의로 회원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릉YWCA | 박지윤 간사

Y-틴 인준식



Y-틴 인준식이 4월 2일 강일여고에서 열렸다.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송을 불러주며 서로를 격려했다. 예배 후에는 인준장 및 지도자 위촉장 수여식과 학생들의 Y-틴 선서에 이어 배지를 전달했다. Y-틴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을 본받아 학교와 사회에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길 다짐했다.

동해YWCA | 김정은 간사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취업창구'



3월 13일 14시부터 16시까지 동해이마트 1층 민원센터 앞에서 취업상담사 4명과 함께 '찾아가는 취업창구'를 운영했다. 동해시 관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취업상담창구를 운영함으로써 구직자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취업희망 여성을 발굴하고 직업훈련 홍보활동을 했다.

천곡초등학교 씩크머니 현판식

3월 17일 천곡초등학교에서 씩크머니 현판식을 진행했다. 천곡초등학교 교감과 6학년 담임교사 및 동해Y 회장과 총장, 씩크머니 강사진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속초YWCA | 김희숙 간사

평화기도회



매주 화요일 10시에 속초 살롬교회 양형철 목사님의 인도로 이사·실무자들이 모여 평화기도회를 가지고 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평화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이 기도회를 씨앗으로 4월 17일 PN4N 대표인 오성훈 목사와 '통일코리아와 분단코리아의 갈림길에 서서 희망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관내 교회와 시민단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춘천YWCA | 이복희 본부장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운영위원회·동아리 발대식



춘천Y청소년문화의 집은 3월 29일 춘천Y 대강당에서 춘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소속 동아리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Y목적문 낭독을 시작으로 10명의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위촉장을, 26개의 청소년 동아리에게 인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참가한 250명의 청소년들은 청소년선서를 통해 소속동아리로서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치매예방트레이너 교육

4월 2일 춘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트레이너 교육을 실시하였다. 치매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섭게 다가오는 병으로 미리 치매를 예방하는 활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경기

고양YWCA | 남궁혜경 국장

이사·위원연구모임 '철원 평화기행'



4월 10일 고양Y 이사·위원·실무자 총 35명이 철원으로 평화

기행을 다녀왔다. 전쟁의 흔적과 함께 희생자들의 역사를 담고 있는 노동당사 방문을 시작으로 평화운동가이자 평화운동가를 양성하고 있는 정지석 목사가 설립한 국경선 평화학교를 탐방했다. 분단의 현실과 아픔을 경험하며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참가자들이 평화운동가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부천YWCA | 이지원 간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공청회

4월 2일 부천시의회에서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관련 우수급식산업 진흥 조례' 공청회를 개최했다. 부천Y 심명자 회장의 여는 말씀에 이어, 최봉석 동국대 교수의 발제, 한혜경 의원의 조례안 설명,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 위원장) 외 2인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아이 손을 잡고 온 학부모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해 공청회의 열기가 뜨겁게 진행됐다.(자세한 내용 P. 28~)

'지역과 환경을 살리는 민들레 엄마학교'



부천시 여성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지역과 환경을 살리는 민들레 엄마학교'를 연다. 총 16회 수업동안 나를 돌아보고 아이와 가족에 대해, 나아가 환경과 지역사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강의들로 구성된다. 첫 수업에는 '나 이해하기'란 주제로 더 건강한 내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YWCA | 정지영 간사

캥거루가족봉사단 도시텃밭 가꾸기

수원Y 캥거루가족봉사단은 올해 도시텃밭 가꾸기에 도전한다. 초보 농부 열한 가족(27명)은 3월 15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땅에서 돌을 골라내고 텃밭을 일궜다. 3월 29일에는 여덟 가족(15명)이 모여 감자와 완두콩을 심었으며, 씨감자를 소독하는 과정을 배웠다. 봉사단이 가꾼 텃밭에서 나온 수확물은 지역 내 독거어르신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 2분기 실무자정책포럼



4월 3일 본·지부 실무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인지 정책 만들기' 라는 주제로 2분기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강의한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은 성인지 정책 문제제기, 정책 성과와 성 주류화 도입 과정, 제도 운영 이해 등의 순으로 진행하여 성인지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배웠다.

#### 인산YWCA

문성은 간사

#### 의정활동평가 보고회



인산Y 의정지킴이는 3월 24일 제6대 안산시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의정활동 평가보고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지난 4년간의 지속적인 의회 방청 및 의회 속 기록 분석과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김철진, 나정숙, 박은경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평가회를 통해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인양YWCA

김희정 간사

#### 생명세상! 당신의 참여로!

3월 25일 강당에서 회원증모발대식을 개최했다. 1부 개회예배는 배미숙 초대회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란 말씀으로 하나



님 사명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친환경 EM특강은 환경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했다. 2부는 대대별 소개와 목표 및 공동체 놀이를 통해 회원간 친목을 다지며 회원증모발대식을 활기차게 시작했다.

#### 학부모 교육특강

4월 4일 강당에서 어린이회원 학부모특강을 진행했다. 8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미영 강사의 '21세기 아이들 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부모의 역할' 에 대한 강연이 이뤄졌다. 안양Y에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미래 인재가 키워지길 기대한다.

#### 의정부YWCA

이미진 간사

#### 의정부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 전개



의정부Y는 3월 18일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단체로 '의정부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운동에 나섰다. 조례의 핵심내용은 급식 방사능 검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마련, 급식 방사능 검사 대상에 어린이집 포함, 어린이집과 학교급식 방사능 정기검사와 검사내용 공개 등이며 조례제정을 위한 의정부시 유권자의 2.5%인 8,593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총 3회의 서명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경기북부 아이돌보미 담당자 간담회



3월25일 경기북부 10개 지역 아이돌보미 담당자 간담회를 경기북부청 과장, 팀장, 주무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전담 12명, 고양Y와 남양주Y 교육담당자가 참석하여 2013년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 결과보고 및 2014년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 계획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이해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더욱 전문적인 아이돌보미를 교육, 양성하여 개별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다짐했다.

### 중부

#### 대전YWCA

김지찬 간사

#### 워킹맘과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사계절 숲체험 캠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공주산림휴양림과 이안숲에서 워킹맘과 자녀, 이주여성과 자녀 40여 명이 캠프를 함께 했다. '발견의 숲'이라는 주제로 엄마와 자녀가 함께 화전을 만들고 직접 뜯은 썩버무리를 요리했다. 앞으로 '놀이의 숲', '예술의 숲', '도전의 숲'이라는 주제로 1박 2일 캠프가 분기별로 진행되며, 산림청·녹색사업단의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 비폭력대화(NVC2)

3월 22일 대전Y는 총 4회로 진행될 비폭력대화센터(NVC센터)와 비폭력대화 2단계 과정을 진행했다.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서 비폭력대화를 훈련하기 위해 18명이 참석했다. 내면의 감정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대화 연습과 댄스 플로잉을 통한 '내 감정 알아차리기 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 재천YWCA

이경희 부장

#### 독거노인 가정 방문 도배봉사단



매년마다 10명의 도배사를 교육하고 있으며 3월 21일 19회 도배사교육을 마치고 도배봉사단과 함께 어려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도배를 했으며 도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

#### 청주YWCA

박보람 간사

#### 청주Y와 지역교회 여성리더와의 모임



3월 26일 청주Y의 기독교운동을 알리고,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고자 청주·청원지역 여성로들과의 모임을 가졌다. 청주Y의 다양한 활동이 여장로들과의 소통으로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민들레 인준식

3월 17일 44명이 모인 가운데 2014년 추진될 YWCA 6대 중점 운동을 함께 공유하고, 24개의 동아리와 3개의 신생 동아리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규숙 청주Y 회장이 38개의 동아리에게 인준장을 수여하며 2014년 힘찬 회원활동을 출발하였다.

세종YWCA

홍진영 팀장

Y-틴 청소년 봉사활동



3월 22일 세종시 전의면에 위치한 장애우 복지시설 '해뜨는 집' 과 전동면 봉대리 경로당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해뜨는 집'에서는 20여 명의 장애우들과 Y-틴이 서로 짝을 이루어 손마사지를 해드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벽화그리기 봉사팀은 낮은 경로당의 벽을 화려함으로 바꾸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섬기는 진정한 Y-틴의 모습이었다.

천안YWCA

이연주 간사

상담카페 '참새방앗간' 전문자원봉사자 발대식



3월 24일 약 2개월 동안 준비한 다목적 상담카페 '참새방앗간' 의 문을 열었다. 작은 꿈으로 시작된 꿈의 공간이 소외된 여성들의 상담 공간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의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정보와 소통이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이에 재능기부(폭력, 아동, 자녀,

외도, 이혼, 정신, 알콜 등의 상담)로 함께할 전문자원봉사자 39명과 함께 발대식을 열었다.

봄 바자회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작은 나눔 더 큰 행복' 이란 주제로 일주일간 봄 바자회가 진행됐다. 바자회를 위한 준비기도회를 통해 이사, 직원 및 회원과의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고, 생산자 직거래를 통한 안심먹거리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천안Y를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광주YWCA

김해정 간사

2014 회원환영회



3월 27일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Y 회원환영회를 개최했다. 1부 환영예배, 2부 환영식에 이어 3부 회원참여마당에서는 '올려라 골든벨 - 광주Y 역사알기' 를 통해 지난 92년간 Y의 발자취를 골든벨 퀴즈로 진행했다. 회원들이 Y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속감과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Y-틴 회원인준식 · 환영회

4월 5일 10개 클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Y-틴 회원환영회 및 인준식을 개최했다. 1부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2부 인준식은 정지운 Y-틴 위원장의 인사말과 최양님 회장의 회원선서, 새회원 인준, Y-틴 클럽 인준장 수여와 공로패 및 공로상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광주YWCA공로상을 7명의 청소년이 수여했고, 10개의 클럽이 인준을 받음으로 Y-틴 클럽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남원YWCA

박경은 간사

회원증모발대식



4월 7일 회원증모발대식을 했다. 한국Y 회원증모 영상시청을 시작으로 대대별 전략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14년 남원Y의 회원들이 활성화 되고, Y운동에 동참하는 지역시민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Y-틴 단합대회

4월 5일 남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단합대회를 했다. 팀을 나눠 피구, 축구, 발아구 등의 경기를 진행함으로 팀 리더십과 협동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단합대회를 통해 2014년 남원Y-틴의 역량을 기대한다.

전주YWCA

김은진 부장

'주체적·자발적 청소년문화 만들기' Y-틴 인준식



전주Y 청소년부에서는 4월 5일 전주Y 민들레홀에서 80명의 Y-틴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청소년문화 만들기'란 주제를 가지고 2014년도 Y-틴 클럽 인준식을 가졌다. 특히 이번 인준식에서는 탈핵운동과 관련해 생활 속 낭비되는 에너지와 이를 절약하기 위한 실천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결의했다.

'좋은 친구되기' 캠페인 ·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주Y는 3월 24일 남원 서원초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전라북도 관내 초·중·고등학교 56개교 6,5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좋은 친구되기' 를 실시한다. 학교폭력 피·가해자의 실제 사례를 나누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방관자로서 대처방법 등에 대해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 학교폭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익산YWCA

장윤미 간사

2014년 Y-틴 인준식 · 환영회



3월 27일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Y-틴 인준식 및 환영회를 진행했다. Y-틴 회원 100여 명이 Y-틴 목적은 낭독에 이어 익산시 내 남성중, 여성중, 이리중, 이일여중, 원광여중 총 5개 클럽 인준장 수여 및 뱃지 전달식을 하며 익산 Y-틴의 첫 시작을 알렸다.

익산Y합창단 순회찬양예배

익산Y합창단은 3월 26일 예안교회에서 순회찬양예배를 드렸다. 길광민 익산Y 회장의 솔로와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중년여성 익산Y 합창단의 찬양을 통해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

목포YWCA

곽수현 부장

2014 전남여성 취업·창업박람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3월 27일 목포체육관에서 '2014년 전남 여성 취업·창업박람회' 를 전라남도 서부권 9개 시·군 234개 구인업체와 1,500여 명의 구직여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했다. 이번 박람회 전남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 고령자 취업향상 프로그램 '산모 신생아 돌봄전문가' 교육 개강식

고령자인재은행에서는 3월 28일 Y강당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령자취업향상프로그램 '산모신생아돌봄전문가' 과정으로 고령자 수강생 20명과 개강식을 가졌다. 교육을 통해 영유아기에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아기의 뇌 발달을 위해 알아야 할 정보들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산모도우미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익히고, 실질적인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순천YWCA | 신현아 간사

#### Y-틴 회원 오리엔테이션



3월 22일 4층 강당에서 순천여고, 순천고, 강남여고, 팔마고 4개 학교에서 총 91명이 모여 2014년도 Y-틴 활동 및 사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Y-틴 오라포래야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SNS를 통하여 모집한 회원들이다. 1부는 클럽참가자 소개와 레크레이션으로, 2부는 탈핵운동 등 YWCA 6대과제의 자원봉사활동 전개방안에 대해 학교별로 발표를 했다.

### 순천YWCA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4월 14일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2014, 생명세상! 당신의 참여로!' 라는 주제로 60일간 펼쳐질 회원증모운동은 이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자원지도자 그룹과 본부 및 부속시설의 직원들을 위주로 한 실무자그룹으로 조를 편성해 9개조 85명의 조원들이 회원 1,500명, 회비 8천5백만 원을 목표로 회원증모 개사곡 부르기 및 작은 회원교육 및 릴레이 기도회 등을 통하여 증모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여수YWCA | 김상희 간사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3월 25일 이해란 감시단장 외 24명의 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발대식에서는 청소년보호법, 감시단원의 역할 등 감시단원 교육이 실시됐다. 대학 Y(전남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감시단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예방과 정화를 위해 계도, 순찰하며 앞으로 1년간 여수지역의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감시활동을 펼칠 것이다.

#### 신임 이사·위원 교육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총 9명의 신임 이사·위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첫째 날은 Y의 정체성 및 목적문 등 Y운동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둘째 날은 10개 부속시설 탐방을 통해 Y에 대해 깊이 이해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 제주YWCA | 장진우 간사

#### 양지회 고(故) 조금숙 회장 5주기 추모예배

3월 12일 제주Y 3층 강당에서 고(故) 조금숙 회장 5주기 추모예배를 가졌다. 양지회 및 제주Y 이사들, 유족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예배가 진행됐다. 고(故) 조금숙 회장은 1977년부터 1982년까지 제주Y 회장을 역임하고 1991년 사회복지법인 양지



회를 창립하여 제주지역 불우한 이웃과 청소년들을 위해 힘써오다가 2008년 양지회를 YWCA에 기증하고 2009년 3월 10일 소천했다.



### 대구YWCA | 김세형 차장

#### 동부지역 Y-틴 협의회



3월 29일 동부지역 Y-틴 회원들이 대구Y로 모여 동부지역 Y-틴 협의회를 진행했다. 동부지역 Y-틴 회원 및 실무자 등 60여 명이 모여 2014년 동부지역 Y-틴 중점운동으로 정한 '탈핵'을 고민하며, 정수희(부산에너지정의행동) 강사의 탈핵 강의를 들었다. 공동체 훈련을 통해 하나된 동부지역 Y-틴 회원들이 앞으로 Y의 젊은 지도력으로 자라나길 기대한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이민자 한국어교실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 받아 이민자 대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등 세계 각국에서 온 26명의 결혼이민자들이 현재 공부 중에 있다. 0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전 과정을 이수하면 국적 취득 시 혜택도 볼 수 있다. 앞으

로 대구Y가 이민자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한다.

### 부산YWCA | 허경량 간사

#### 신입직원교육

4월 10일 신입직원 교육을 진행했다. Y의 역사, Y운동에 대한 이해, 선배와의 만남, 지부 알아가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YWCA를 바로 알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4월 15일 서면에서 'No more 후쿠시마! 태양과 바람을 품고 생명을 보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불의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여는 기도로 시작하여 구호 제창, '핵을 반대합니다' 노래 및 율동, 후쿠시마에서 온 편지 낭독, 전단지·탈핵신문 배포, 탈핵퀴즈, 인증샷, 서명(노후원전폐쇄, 신규원전 건설반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민 스스로가 탈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불의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 포항YWCA | 황혜민 간사

#### 이사·위원·강사 연수 및 회원증모 발대식



4월 9일 포스코 패밀리 수련원에서 강교자 한국Y 명예연합위원을 모시고 이사·위원·강사 연수를 가졌다. 약 50여 명이 참석하여 Y의 정체성 및 Y운동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회원증모발대식을 통하여 회원 증모의 의미와 지역사회 속에서 포항Y의 목적을 되새겼다.

#### 이주여성 민들레 모임

4월 3일 포항시 양포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 민들레 모임을 진행했다. 기혼이민 여성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자 분기마다 정기모임을 가지며 이주여성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거제YWCA

김의향 팀장

흡연피해 구제운동 서포터즈



3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 주관으로 거제Y 진승미 회장과 김복례 부회장이 시민단체, 사회단체, 병원, 장기요양기관 등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을 위한 흡연피해구제의 실천동력 확보를 위한 범시민적 흡연피해구제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거제Y는 흡연 피해, 담배소송 및 구제기금 입법 추진의 필요성을 위해 지역 내 여러 단체들과 함께 흡연피해구제운동 서포터즈로 위촉되어 활동하기로 했다.

마산YWCA

이애라 부장

성역의 바로잡기 캠페인



마산Y 부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는 4월 1일 제52회 진해군항제 행사장(진해 장복산 일대)에서 성매매 없는 사회 만들기 '성역의 바로잡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들은 물티슈와 리플렛을 500여 명의 관광객에게 나눠주며 성매매 근절 및 올바른 성문화 풍토 조성에 대해 홍보했다.

양산YWCA

박경하 간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을 3월 24일부터 진행했다. 교육과정은 4월 28일까지 총



120시간으로 진행되며 산모케어 교육, 신생아케어 교육, 수납정리전문가 교육(2급 자격과정) 등 전문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료생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서 산후조리원 등 관련 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장년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진주YWCA

조현진 간사

부활절 계란 나누기

4월 17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부활절 계란 나누기를 진행했다. 진주Y는 Y와 이웃해 있는 기관, 시청 연계 부서, 주민센터 등 18곳을 방문하여 준비한 부활절 계란과 메시지 바구니를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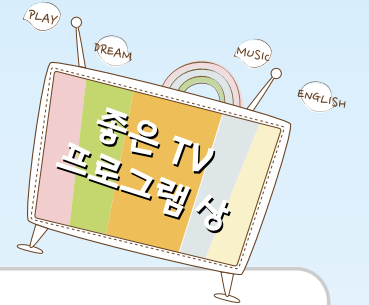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교육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진주Y 감시단은 4월 15일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권동춘 경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감시단원으로서 활동과 전략을 듣고 2014년 활동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8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추천을 받습니다!



시상대상

2013년 3월 1일~2014년 4월 21일까지 방영된 공중파 및 케이블 TV 프로그램

시상부문

대상, 생명부문상, 여성부문상, 평화부문상, 청년·청소년부문상, 특별상

추천기간

2014년 4월 21일(월)까지

추천방법

홈페이지 연합회 뉴스 공지 참조(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구두추천 가능)

심사방법

전문위원들의 1차 서류 심사와 2차 영상물 심사, 3차 최종 심사로 진행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식

- 3차 최종 심사결과 발표 : 2014년 5월 12일경
- 시상식 : 2014년 5월 23일(금) 오전 11시 한국YWCA연합회 강당